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금 주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helter Experience on Self-reliance  
of Women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2023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금 주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성 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금 주

## 김금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용 섭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재 영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성 배



2023년 6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1장 서 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	1
제2절 연구 목적 .....	4
제3절 연구 문제 .....	4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5</b>
제1절 가정폭력 피해 여성 .....	5
1. 가정폭력 정의 .....	5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실태 .....	6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7
1. 쉼터 정의 .....	7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현황 .....	10
제3절 쉼터 이용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현황 .....	15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현황 .....	15
2. 주거 지원현황 .....	17
제4절 선행연구 .....	20
1.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경험 .....	20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 .....	22
<b>제3장 연구 설계</b> .....	<b>25</b>
제1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25

1. 연구 대상 .....	25
2. 연구 방법 .....	28
제2절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	30
1. 자료수집 .....	30
2. 자료분석 .....	33
제3절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	35
<b>제4장 연구 결과 .....</b>	<b>36</b>
제1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폭력과 단절하다 .....	36
1.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	36
2. 이렇게 살 수는 없다 .....	40
3. 준비되지 않은 탈출 .....	45
제2절 폭력의 단절을 위해 쉼터를 선택하다 .....	48
1. 거취문제 해결과 안전한 쉼터를 만나다 .....	48
2. 쉼터 생활을 시작하다 .....	51
3. 쉼터 내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다 .....	56
제3절 쉼터의 자립 프로그램을 만나다 .....	59
1. 자립을 위한 첫걸음 직업훈련 .....	59
2. 현실에 맞춘 취업 .....	61
3. 거주지 선택 .....	64
제4절 자립을 위해 새둥지로 떠나다 .....	68
1.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	68
2. 퇴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쉼터와의 관계 .....	70
3. 쉼터 퇴소 후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 .....	71
<b>제5장 결 론 .....</b>	<b>85</b>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85
제2절 연구 시사점 .....	87
1. 정책적 시사점 .....	87
2. 실천적 시사점 .....	88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	89
참고문헌 .....	91
부    록 .....	97



## 표 목 차

<표 2-1> 쉽터 종류 .....	9
<표 2-2> 쉽터 설치 현황 .....	10
<표 2-3> 쉽터 입소 경로 .....	11
<표 2-4> 쉽터 입소시 동반한 아동 연령별 현황 .....	12
<표 2-5> 쉽터 거주기간 .....	13
<표 2-6> 쉽터 입·퇴소 현황 .....	14
<표 2-7> 쉽터 입소자 직업별 현황 .....	15
<표 2-8> 쉽터 입소자 직업훈련 지원 현황 .....	16
<표 2-9> 쉽터 입소자 취업 현황 .....	17
<표 2-10>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제도 .....	18
<표 3-1> 연구 참여자의 배경 .....	26
<표 3-2> 자료 수집 단계 .....	31
<표 3-3> 주요 질문 .....	32
<표 3-4> 주제별 분석틀 .....	34
<표 4-1> 분석결과 요약 1 .....	73
<표 4-2> 분석결과 요약 2 .....	74
<표 4-3> 분석결과 요약 3 .....	75
<표 4-4> 분석결과 요약 4 .....	76
<표 4-5> 분석결과 요약 5 .....	77
<표 4-6> 분석결과 요약 6 .....	78
<표 4-7> 분석결과 요약 7 .....	79
<표 4-8> 분석결과 요약 8 .....	80
<표 4-9> 분석결과 요약 9 .....	81

<표 4-10> 분석결과 요약 10 .....	82
<표 4-11> 분석결과 요약 11 .....	83
<표 4-12> 분석결과 요약 12 .....	84

## ABSTRACT

### The Effect of Shelter Experience on Self-reliance of Women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Keum-Ju Kim

Advisor : Prof. Seong-Bae Jeong,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In order for women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to escape violence, it is most important to lay the foundation for self-reliance.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meeting the realistic needs of women living in shel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tasks so that vocational training and economic independence support for women using shelters can lead to practical independence.

Specific research tasks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it investigates the impact of women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on their willingness to stand on their own feet.

Second, we examine the determinants and obstacles of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for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the experience of women affected by domestic violence using shelters.

Third, we will look into what policies and support should be prepared so that women who use shelters can maintain stable independence after leaving the shelter.

In this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approach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ree women living in the shelter and two women who left the shelter and

succeeded in self-reliance were interviewed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on domestic violence, shelter experience, and self-reliance.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method is appropriate is to find out what practical problems you experience while recovering your lost self in the process of domestic violence and preparing for self-reliance in a resting place.

The research results present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when analyzing the experience of service users, supporting economic independence in shelter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was important for victims. Vocational training helped grow as a worker and provided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effects, and employment links supported escaping violence through economic independence.

Secon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linked processes should be systematized. It is necessary to support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in connection with experts such as vocational counselor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various programs are provided at the shelter to overcome the lethargy of women who use the shelter and restore their self-esteem, but specific counseling and guidance 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re not provided professionally. Therefore, even if you try to acquire professional skills by receiving vocational training, you will receive vocational training without accurate and specific knowledge of what your aptitude is and whether you have future prospects.

Third, it was found that residents and retirees had the greatest desire for housing support in relation to economic independence. They used national rental hous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other private housing support systems, but these systems are subject to various restric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of women using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d studies what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help them find more stable jobs, provide comfortable housing, and lead a true independent life.

Therefore, comprehensive employment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nclude career support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weak in the labor market. To ensure systematic support for each stage of economic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gram development policy.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shelter experience, self-relianc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2019년 발표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가해자 유형은 배우자가 76.9%이며 피해자 연령은 19~60세가 79.7%이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도 10.9%로 나타나 장기간 배우자 폭력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10.3%가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남성 응답자의 6.2%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당시나 이후에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여성 80.3%, 남성 94.2%)는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도움을 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7.2%, ‘이웃이나 친구’가 3.6%, ‘경찰’이 2.3% 등으로,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 요청 경험이 좀 더 많았다(2019, 여성가족부).

가해자의 폭력으로 사적 공간을 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노출되는 상황을 매우 수치스러워할 뿐 아니라 가해자와 적당히 합의를 권하는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으며 경찰의 처리 과정의 불만족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견디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중 여성긴급전화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상담 서비스다. 여성긴급전화와 가정폭력상담소는 컴퓨터와 연계가 이루어져 생존자들이 가정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들의 긴급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라고 함)이다.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가정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쉼터는 피해여성을 위해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의료지원, 폭행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고소, 이혼과 관련된 법률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취업제공, 퇴소시 주거지원 연계까지 하게 된다.

쉼터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쉼터 생활 기간 내에 자립 기반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쉼터에 찾아온 많은 피해자가 자립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제한된 쉼터 생활기간 내에 완벽하게 자립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

쉼터 퇴소 후 피해자들이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은 항목은 취업 알선,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나 독립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자립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쉼터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제안되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성주의 연극치료 혹은 이들을 기존의 심리치료나 약물치료에 더해서 함께 제공하며 통합 치료로서의 의미와 활용도에 대해 연구 하였다(박찬양·김진아, 2020 ; 김숙현, 2018 ; 채드E·김미리혜, 2013). 피해여성의 자립요인과 관련하여 취업을 통한 피해 여성의 소득 활동은 탈폭력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김주현, 2008 ; 박언주, 2010 ; 양현아, 2006). 또한 피해여성이 취업 중일 때, 초혼인 경우, 혼인 당시 가족부양 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자녀 학대 발생과 자녀와 동반 입소한 경우, 또한 쉼터에 머문 기간이 길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의지가 강할수록 자립 성공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류은주, 2009).

또한, 시기와 노동시장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호시설에서의 훈련직종으로는 컴퓨터 자격증, 바리스타, 미용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웃음치료사, 한식·양식조리사,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운전면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서재인, 2017).

하지만 쉼터 퇴소자의 약 90%가 유자녀 여성, 절반가량이 40대 미만으로 자녀돌봄 집중기를 지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149명의 쉼터 여성 중 25%는 불충분한 교육기간, 적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불투명한 취업연계 가능성 때문에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소숙희·최승아, 2019). 그렇지만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취업훈련 경험은 경제적 자원 확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사회적 관계 확장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Macmilan & Gartner 외, 1999 ; 박언주 · 김호정, 2015 ; 신나래 · 박언주, 2018).

한편 퇴소자들은 퇴소로 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의 기회로부터 제외되며 서비스의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의 지속성과 연결성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공미혜, 2017 ; 서경남,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보호시설인 쉼터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서 보호시설의 효율성 연구의 선행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삶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방안과 자립에 필요한 취업 연계프로그램, 주거지원, 퇴소 후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피해여성의 현실적인 욕구 반영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쉼터에서 거주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과 직업훈련 경험이 자립을 위한 조건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회복과 자립의 과정에서 시설이용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이 경험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외부의 자립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퇴소 후 지속적 서비스를 위한 방안에 관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쉼터 입소자와 퇴소자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받은 고통과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쉼터 이용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듣고 실천 현장에서의 쉼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원조 활동에 대한 성찰과 지원 방안들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거주는 폭력을 벗어나 자립을 위한 첫 번째 원조이며 이는 다시 사는 삶의 동아줄이기도 한 쉼터의 역할을 기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대한 응답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자립 과정과 자립 이후의 삶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자립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에 연구 목적이 있다.

## 제3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이용 경험이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 본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이용 경험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의 결정 요인과 방해 요인을 검토한다.

셋째, 쉼터 이용 여성의 퇴소 후 안정적 자립 유지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 지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가정폭력 피해 여성

#### 1. 가정폭력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된 범죄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다.

김권영(2014)에 따르면,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가정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force)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Straus (1990)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가정 내 구성원에게 행하는 모든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박상태(2018)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은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 특히 남편에 대한 아내 폭력으로 이는 아내 구타, 아내 학대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우자 관계에서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부부싸움, 부부 갈등과는 크게 구별된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폭력에는 위협, 강제 또는 위압이 존재한다는 점과 배우자가 이러한 힘에 종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폭력이 이루어

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문제점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며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친밀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실태

여성가족부(2019)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8월 ~ 2019년 7월 기간동안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로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0.9%,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28.9%로 여성 응답자의 5.9%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28.9%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경우 통제 23.9%, 정서적 폭력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으며 남성은 통제 23.4%, 정서적 폭력 5.8%, 신체적 폭력 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또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최근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시도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한 신체적 우위에 있는 남성의 폭력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폭력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면 여성의 경우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45.6%로 남성(40.7%)보다 대응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43.1%였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

잤다 12.5%,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0%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위에 요청한 1.0%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7.2%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는 3.6%였으며,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경험은 2.3%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청한 경험도 각각 0.4%에 그쳤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대응을 할 경우 더 큰 폭력을 당할 위험과 다음 폭력의 구실이 되었던 경험이 맞대응을 피하고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게 했으며 집 밖으로 도망가더라도 집에 남겨진 아이들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포기했던 무대응의 시간이 폭력의 피해가 장기화 되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의 유형 또한 변화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벌을 법적·정책적 제도 안에서 보다 엄중하게 적용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1. 쉼터 정의

쉼터는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시 피난처로서 1971년에 영국의 여권론자인 Erin Pizz에 ‘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이은순, 2009). 쉼터는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로서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영국 전역에 다른 쉼터들이 문을 열게 되었다(이은정, 2004). 미국은 영국보다 다소 늦게 쉼터가 설립되었는데, Minnesota주 Saint Paul의 여성유권자회에 의해서 1972년 최초의 쉼터가 설립되었다. 1973년 1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가 쉼터로 마련되었지만 6개월 만에 폐쇄되었고, 1974년 10월에 5개의 침실을 갖춘 ‘여성의집’이 문을 열게 된 이후에야 미국 전역에 쉼터가 확대·설치되었다

(이은, 2000). 우리나라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설립되고 전화 상담을 시작으로 1987년 한국 최초로 쉼터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5).

Shelter는 피난처, 은신처, 보호소 등의 의미를 말하며, ‘재난이나 위협,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 숨어 있는 곳’ 혹은 ‘위험이나 폭행,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박상태, 2018).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전화가 ‘Shelter house’를 ‘쉼터’라는 고유명사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1987년 쉼터의 설립은 쉼터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정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큰 역할을 하였다.

박애경(2008)은 쉼터는 폭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를 넘어서 자신의 독자적 삶을 설계하는 토대이며, 김영자(2008)는 쉼터는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위기 시 긴급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여성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순(2009)은 쉼터는 가정폭력을 단절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안전과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후 2015년 5월까지 18차례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 제정 초기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업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일시 보호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통한 가정복귀 지원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피해여성 대부분은 가정으로의 복귀보다는 자립을 희망하고 있다.

쉼터의 설립이 30주년을 넘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의 쉼터는 긴급피난처로의 ‘보호’를 넘어 쉼터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는 피해여성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쉼터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 단기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이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일 이내로 임시보호를 하며 단기보호 시설은 6개월 거주 가능하며 3개월 범위에서 2번 연장하여 최장 1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장기보호시설은 2년, 가족보호시설도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표 2-1>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 쉼터 종류

종류	대상	보호기간	비고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	6개월 이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1년)
장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	2년이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미취업하는 경우 퇴소 조치 가능
가족보호시설	10세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2년이내	가족보호 시설은 되도록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출처 : 여성가족부(2022b). 2022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쉼터의 업무로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으며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

보호,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

##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현황

쉼터는 통상 10세 미만의 남아(여아는 나이 제한 없음)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일반쉼터 42개소,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 입소할 수 있는 가족쉼터는 23개소로 쉼터는 총 6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천, 울산, 경기, 경북지역에는 가족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는 동반아동과 함께 원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표 2-2>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2> 쉼터 설치 현황

(22.6.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일반시설	42	8	2	2	1	2	0	1	11	4	1	1	2	2	2	3	0
가족보호 시설	23	3	1	1	0	2	1	0	0	1	2	3	2	2	0	3	2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는 보호시설을 일종의 수용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최종옥, 2012). 그렇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쉼터 입소 경로는 본인, 가정폭력 상담소, 1366, 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하였고, 1366을 통하여 연계되어 입소하는 경우 3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입소가 24.8%, 경찰에 의해서 17.3%로 나타났으며 기타 7.5%, 본인 4.4%, 성폭력상담소 2.3%, 일반 행정기관 2.3%, 사회단체 1.7%로 조사되었다. 학교 교사, 병원을 통한 쉼터 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쉼터 입소 경로

(단위 : 명, %)

연도	계 비율	본인	가정 폭력 상담소	1366	성폭력 상담소	일반 행정 기관	경찰	사회 단체 (복지 시설)	학교 교사	병원	기타
2017	2,055	61	482	827	39	52	409	97	2	9	77
	100	3.0	23.5	40.2	1.9	2.5	19.9	4.7	0.1	0.4	3.7
2018	1,756	39	437	786	52	34	311	53	0	4	40
	100	2.2	24.9	44.8	3	1.9	17.7	3	0	0.2	2.3
2019	1,702	43	445	730	35	46	284	21	1	0	97
	100	2.5	26.1	42.9	2.1	2.7	16.7	1.2	0.1	0	5.7
2020	1,133	23	284	508	24	30	163	20	1	0	80
	100	2.0	25.1	44.8	2.1	2.6	14.4	1.8	0.1	0.0	7.1
2021	1,010	15	238	478	30	40	131	11	0	0	67
	100	1.5	23.6	47.3	3.0	4.0	13.0	1.1	0.0	0.0	6.6
2022. 6.	480	21	119	191	11	11	83	8	0	0	36
	100	4.4	24.8	39.8	2.3	2.3	17.3	1.7	0.0	0.0	7.5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과 함께 피해자녀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쉼터 입소 시 동반한 아동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세 미만 13.3%, 3세~6세미만 29.7%, 6세~12세 41.3%, 13세~18세 14.3%, 19세 이상 1.4%로 6세~12세의 학령기 아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에 대한 생계비 외 학습에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의



대상자로서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2-4>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4> 쉼터 입소시 동반한 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아동을 동반한 피해자 수	동반아동 연령별 현황					
		계 비율	3세미만	3세-6세미만	6세-12세	13세-18세	19세이상
2017	948	1,220	190	314	479	185	52
		100	15.6	25.7	39.3	15.2	4.2
2018	686	948	145	250	383	136	34
		100	15.3	26.4	40.4	14.3	3.6
2019	677	934	134	195	400	181	24
		100	14.3	20.9	42.8	19.4	2.6
2020	387	569	72	120	236	104	37
		100	12.7	21.1	41.5	18.3	6.5
2021	388	537	81	107	229	93	27
		100	15.1	19.9	42.6	17.3	5.0
2022.6.	162	286	38	85	118	41	4
		100.0	13.3	29.7	41.3	14.3	1.4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쉼터 거주 기간은 단기 쉼터는 6개월에서 3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하여 최장 1년이며 중 장기 쉼터는 2년이다. 2017년 10일 이하 거주기간은 13.6%~23.1%이나 2022년은 10.9%~20.4%로 거주기간이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6월이하 동안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9월초과~2년이하는 1.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6월 현재 결과는 10.6%를 보이고 있다. <표 2-5>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5> 쉼터 거주기간

(단위 : 명, %)

연도	계 비율	3일	4일	8일	1월초과	2월초과	3월초과	4월초과	5월초과	6월초과	9월초과
		이하	7일	1월 이하	2월이하	3월이하	4월이하	5월이하	6월이하	9월이하	2년이하
2017	2,994	407	404	691	344	235	178	171	124	398	42
	100	13.6	13.5	23.1	11.5	7.9	5.9	5.7	4.1	13.3	1.4
2018	2,744	380	330	686	350	210	151	114	116	251	156
	100	13.8	12	25	12.8	7.7	5.5	4.2	4.2	9.1	5.7
2019	2,528	313	326	590	290	180	131	133	103	266	196
	100	12.4	12.9	23.3	11.5	7.1	5.2	5.3	4.1	10.5	7.7
2020	1,806	185	201	401	226	112	82	86	89	169	255
	100	10.2	11.1	22.2	12.5	6.2	4.5	4.8	4.9	9.4	14.1
2021	1,516	130	146	270	208	118	101	67	74	185	217
	100	8.6	9.6	17.8	13.7	7.8	6.7	4.4	4.9	12.2	14.3
2022. 6.	827	90	89	169	137	52	51	45	52	54	88
	100	10.9	10.8	20.4	16.6	6.3	6.2	5.4	6.3	6.5	10.6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쉼터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275명, 2018년 2,704명, 2019년 2,636명, 2020년 1,702명, 2021년 1,547명, 2022년 6월 766명으로 점차 쉼터에 입소하는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시설 입소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최근시설 입소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자기인식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위치, 욕구에 따라 시설 내에서의 보호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시설

화를 넘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공동생활의 부정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쉼터 입·퇴소 현황을 <표 2-6>에 제시 다음과 같이 하였다.

<표 2-6> 쉼터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연 도	연중 입소 인원			연중 퇴소 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2017	3,275	2,055	1,220	2,994	1,870	1,224	839	518	321
2018	2,704	1,756	948	2,744	1,769	975	749	471	278
2019	2,636	1,702	934	2,528	1,650	878	797	497	300
2020	1,702	1,133	569	1,806	1,173	633	603	401	202
2021	1,547	1,010	537	1,516	1,025	491	612	371	241
2022. 6.	766	480	286	827	494	333	547	350	197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2021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1,010명 중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2-7>에 쉼터 입소자 직업별 현황으로 제시하였다.

<표 2-7> 쉼터 입소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비율	전업 주부	단순 서비스직	농림수산 노동자	농림 수산업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	전문 관리직	기타
2017	2,055	1,278	84	41	203	52	11	136	63	187
	100	62.2	4.1	2.0	9.9	2.5	0.5	6.6	3.1	9.1
2018	1,756	1,062	178	2	34	43	57	120	60	200
	100	60.5	10.1	0.1	1.9	2.4	3.2	6.8	3.4	11.4
2019	1,702	947	176	30	94	45	100	56	254	·
	100	55.7	10.3	1.8	5.5	2.6	5.9	3.3	14.9	·
2020	1,133	641	108	19		30	32	76	47	180
	100	56.6	9.5	1.7		2.6	2.8	6.7	4.1	15.9
2021	1,010	585	94	19		21	35	61	52	143
	100	57.9	9.3	1.9		2.1	3.5	6.0	5.1	14.2
2022. 6.	480	286	12	8		37	6	29	18	84
	100	59.6	2.5	1.7		7.7	1.3	6.0	3.8	17.5

출처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제3절 쉼터 이용 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현황

####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현황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해당 정책 집행을 위해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직업 및 진학 교육을 통한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 1) 직업훈련 지원 현황

컴퓨터 입소자 직업훈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직업훈련에 지원한 사람은 452명, 직업훈련 건수는 581건이며 이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한 인원이 106명, 훈련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한 인원이 125명이며 창업한 인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에 지원한 사람과 직업훈련을 받은 건수에 비해 취업을 한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창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자격, 음식조리, 요양보호사, 커피 바리스타, 운전면허, 네일, 피부, 미용, 산모, 신생아, 아동돌봄, 상담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8> 컴퓨터 입소자 직업훈련 지원 현황

(단위 : 건, 명)

기간	훈련지원 인원(명)	직업훈련 건수(건)	취업인원(명)			창업인원(명)		
			소계	유관 직종	무관 직종	소계	유관 직종	무관 직종
2017	423	497	210	105	105	5	5	0
2018	452	581	231	106	125	2	1	1
평균	437	539	220	105	115	3	3	0

출처 : 권혜수 외(2019).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

## 2) 취업 지원 현황

컴퓨터 입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 컴퓨터에서 제공한 취업 정보 제공이 1,335건, 취업지원 기관 연계 266건, 취업지원 기관의 구직 정보제공 380건, 취업알선 214건이며 이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597명, 창업인원은 9명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 비교해 2018년은 취업지원 건수와 취업인원, 창업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컴퓨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높은 요구로 인해 여전히 취업, 창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2-9>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9> 쉼터 입소자 취업 현황

(단위 : 건, 명)

기간	보호시설 취업지원(건)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건)		취업인원(명)	창업인원(명)
	취업정보 제공	기타취업 지원	취업 지원기관 연계	구직정보 제공	취업알선		
2017	523	299	187	254	134	330	8
2018	1,335	485	266	380	214	597	9
평균	929	392	227	317	174	463	8

출처 : 권혜수 외(2019).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

## 2. 주거 지원현황

한시적 주거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여성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주거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275호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기준 344개소가 제공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에 전세로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1호당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입주하는 그룹홈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주거안정 지원은 2009년 법 개정예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되었다. <표 2-10>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0>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제도

구분		기간	특성	
한시적 주거 지원	주거지원 시설	주거지원사업 (’08년~, 총344호 중 약 200호)	최대4년 (2년+2년)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 재임대(임대료 부담, 그룹홈 원칙), 보장시설 비해당
주거 안정 지원	독립주거	국민임대주 택 우선입주권 (’09년~)	최대 3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보호·주거 지원시설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2년 이내 신청 가능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최대 20년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영구·다가구매입·기존주 택 전세임대) 신청 가능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거유지	자립지원금	1회	퇴소자 중 선정 지원(500만원, ’19년 이후 퇴소자에 한함)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주거지원시설 입주자 중 소득/재산 기준 해당자	
원거 주거 지원	가해자 퇴거 등 격리조치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2~6개월	원거주거 접근 기간제한, 주거 소유권이나 점유권 확보 조치는 아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1년~3년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2년 이내	거주지(집)는 재산으로 환가되어 재산분할청구권 기준에 따라 분할

출처 : 고은정(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현재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 자격에 충족하는자 중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나, 주거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연령, 소득, 장애 등으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먼저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주거복지 제도가 확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하고 LH나 지역주택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건설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가정폭력 피해자를 주거 취약계층으로 포괄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거지원을 활용하여 건설 매입 전세임대 주택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국토부의 <주거사다리사업>의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포함되어 공공주거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단, 입주 자격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희망 지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해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개인이 부담한다(고은정, 2022).

그러나 실제 공급량이 적고, 신청 서식 내 <자활계획서>를 포함한다는 점,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심사기준이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 긴급하게 지원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선미, 201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위기 상황에 포함된다. 법에 의해 단기 보호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는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자는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이념 조항 중 하나로 신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체계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쉼터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부터는 4개월 이상 입소자가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원 거주지 거주 지원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퇴거 조치하여 피해자가 원 거주지 점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그 외 조치는 1개월로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21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등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통해서도 가해자 격리가 가능하다.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 될 수 있으며, 물리적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고 친권과 면접교섭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때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한다(신나래·박언주, 2020).

가해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할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원 거주지 또는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을 확보할 방안이 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하는 영역이며, 협의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정해진다. 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은정, 2022).

## 제4절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경험 그리고 자립과 관련한 순으로 살펴보겠다.

### 1.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경험

가정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재욱·김봄이·신나래(2019)는 친밀한 관계에서 권력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무차별적 폭력이나 지인·동료들 사이에서의 일반폭력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들, 즉 반복성, 계획성, 의도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폭력과 달리 가정폭력은 친

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최종옥(2012)은 가정폭력은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실수라기보다 권력의 차이에 의한 지속적 억압과 통제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였다.

박현숙(2019)은 가정폭력이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결혼 후 5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술을 마셔서, 외도문제, 자녀문제 등 이라고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차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지만, 적어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거주해 있는 기간에 폭력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관계,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공통문제를 가지고 있다(신은주, 1995 ; 권진숙, 1996).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쉼터입소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일 것이다. 쉼터에서의 안전은 피해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쉼터에서는 입소자의 물리적 안전과 치료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동반자녀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소자들은 장·단기 공동생활시설에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생활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고은주·김정우, 2016 ; 신나래, 2017; Haj-Yahia and Cohen, 2009 ; Glenn and Goodman, 2015 ; Perez-Trujillo and Quintane, 2017).

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무가 주어지고, 공동생활 규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 사생활은 제한된다. 홍상희(2009)는 “집을 나와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자비를 들이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타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된다고 하였다(최종옥,2012). 쉼터는 공동생활 시설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가진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규칙을 따르며 타인과 24시간을 함께 하는 생활은 입소자들에게 익숙한 일반가정에서 영위했던 삶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한 방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 독립된 공간의 부족, 입소자 간 생활리듬의 차이와 같은 공간적 특성은 입소자의 정서와 회복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재욱 외, 2019 ; Tutty et al., 1999 ; Koyama, 2006).

쉼터에서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 경험을 하게 된다. 보호시설은 피해 가족들의 공동생활 장소이기에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서로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지지를 통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최종욱, 2012).

##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동원할 수 있으며, 정서적·사회적으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자립’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자립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정서적·사회적·경제적으로 일상을 의지하고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정폭력피해 여성에게는 폭력으로 얼룩진 고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폭력의 고리를 끊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던 과정이 단순한 홀로서기의 의미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며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단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일상성·사회성을 회복해야만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춘숙(2015)는 “가해자로부터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를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속희·최승아(2019)는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퇴소 후 가장 받고 싶은 지원 및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는 주거지원이라고 응답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녀관련 지원은 14.8%, 직업훈련 및 취·창업지원 14.1%, 소득지원 11.4%, 의료지원 9.4%, 상담지원 6.0%, 법률지원 2.7%, 본인교육지원 2.0%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문제, 퇴소 후 주거 문제, 거처문제, 생활비 문제, 취업문제 등은 모두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기반은 이들이 폭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다(Anderson, 1997 ; 김은영 외, 2013 ; 신나래, 2017).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들 중 독립을 생각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취업 경험이 전혀 없거나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일을 했던 여성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류은주(2009)는 자립 욕구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취업훈련과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시까지 컴퓨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실제 취업 알선으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개별적 특성에 맞춰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자립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주거불안, 자립지원 제도 및 시스템의 지원 미비,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등의 낮은 자립의지, 자녀돌봄 지원의 부재 등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류은주, 2009 ; 김은영 외, 2013 ; 신나래, 2017 ; Kaukinen, 2004).

촉진 요인으로는 재정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의 확보, 자녀돌봄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실질적 직업훈련과 퇴소자들의 긍정적인 자립 모델링,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지 등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류은주, 2009 ; 정혜숙, 2013).

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원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경제적 자립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자립 의지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여성에게 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퇴소 이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성공을 위해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의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공미혜, 2017 ; 류은주, 200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정화된 자립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립지원 서비스에 따른 효과성 및 개선점 등에 관해 단편적으로만 제시돼 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 필요 요건에 대한 경험 세계가 심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배우자로부터의 경제적 폭력과 통제에 관한 분석에 국한되고 있으며(김승권, 2008 ; 소병숙·정혜정, 2002).

가정폭력이 이러한 생애 사건의 발생과 함께 여성의 자립에 미치는 장 단기적 영향에 대한 국내 문헌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접근성과 표집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K광역시의 가족보호시설인 쉼터를 통해 총 5인을 모집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거주, 퇴소, 자립의 과정 경험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 사이였으며 30대가 2명, 40대가 2명, 50대가 1명이다. 대상자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입소 당시 4명은 고정적인 취업상태는 아니었으며 1명은 폭력 피해 발생과 쉼터 입소로 인해 노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쉼터 이용 기간과 관련하여도 6개월~30개월까지 다양하게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쉼터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소경위, 입소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가정폭력 발생 시점이 얼마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현 입소자 3인과 퇴소경험과 자립의 과정을 경험한 퇴소자 2인을 표집 하였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이혼 희망 가정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는 K지역의 한 쉼터 이용 여성 중 5명과의 1:1 면접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종사하고 있는 쉼터 이용 여성들이 본 연구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인터뷰 요청이나 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이자 내담자인 이용 여성들이 인터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참여자가 연구 목적에 대해 공감할 때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며 인터뷰 과정 중에도 참여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였다. <표 3-1>에 제시된 참여자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연구참여자	연령	학력	현직업	자녀수	현재상황	쉼터거주기간	현주거지
참여자 1	3*	중졸	무직	3	이혼소송 중	6개월	쉼터
참여자 2	4*	고졸	자활근로	4	이혼소송 중	10개월	쉼터
참여자 3	4*	대졸	무직	1	이혼소송 중	8개월	쉼터
참여자 4	3*	고졸	네일아트	3	이혼	12개월	주거지원
참여자 5	5*	대졸	사회복지사	2	이혼	30개월	자가

### 1) 참여자 1(현 입소자)

참여자 1은 현재 30대 중반으로 어린 나이에 만난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 생활을 했으며 알콜 중독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 전부터 식당, 편의점, 학교 도서 도우미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자녀 할인, 물품지원 등을 받으며 생활했다. 남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노동, 운송일을 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이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는 말이 없고 위험하진 않았지만 폭력이나 폭언 등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날 일어나며 알콜 중독 단계라고 한다. 만취한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을 자녀들이 있어서 참으면서 살았지만 최근에 자녀에 대한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이다.

### 2) 참여자 2(현 입소자)

참여자 2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익숙했으며 폭력을 너무 자주 목격하여 무섭지 않고 무덤덤했으며 아버지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시어머니의 조력으로 버텨냈고

자신은 남편의 폭력으로 더 강해졌다고 함. 남편 또한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폭력적이었으며 외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뻔뻔하게 행동했었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빠의 폭력성을 닮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자활근로를 다니며 자립을 준비 중이며 아빠의 폭력으로 힘들었을 테지만 4명의 아이들은 성격이 밝은 편이다.

### 3) 참여자 3(현 입소자)

참여자 3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 기간은 8년으로 아이 한명과 함께 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결혼 전 친정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였으며, 그때 남편을 소개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었다. 남편은 언변이 매우 좋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편으로 밖에서는 성인군자로 보여졌으며 완벽주의자로 타인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충 넘어가는 것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소한 실수에도 남편은 못마땅 해 하고 그로 인해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와이프에게 돌리며 폭언과 폭력이 아이 앞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폭력을 목격한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심했지만 쉼터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다.

### 4) 참여자 4(퇴소자)

참여자 4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밝은 성격으로 자녀 3명과 남편의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쉼터에 입소해 12개월을 단기 쉼터에서 머물다 주거지원으로 퇴소하였으며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재산분할 재판 진행 중이며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합가할 것을 종용받아 불안해 하고 있다.

10여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으며 여러번 가정폭력을 신고 하였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가정상담센터와 상담을 통해 쉼터를 알게 되어 입소하고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받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컴퓨터 자격증, 운전연수,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미용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이며 쉼터 생활 중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기억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의 꿈도 이루기 위해 준비 중이다.

## 5) 참여자 5(퇴소자)

참여자 5는 오십대 중반의 대졸 여성으로 자녀 2명과 함께 단기쉼터에서 12개월, 장기쉼터에서 16개월의 기간동안 생활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고 퇴소하여 자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참 예민할 시기의 중학생 자녀들과 쉼터생활을 하며 내·외적 갈등은 심했으나 퇴소 후의 삶이 절박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재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하고 독점하는 상황이라 입소 시에도 쓸 수 있는 여윳돈은 거의 없었으며 재산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상 이중고를 겪었던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자이기도 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쉼터에 있는 여러 가족과 지지적 관계를 이어가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 갈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여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와 쉼터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립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쉼터를 하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과학적 연구방법은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피해여성의 쉼터 경험이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기존의 삶의 영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동주거 공간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과 경제적 폭력 경험이 비가시화되고, 피해자인 여성은 경제적 자립을 개인의 역량과 의지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쉼터에서의 경험을 자립을 위한 요소로만 바라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만 주목하게 되면 다른 취약계층과 다를 바가 없이 경제적 문제로 축소하여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원 거주지로부터 떠나 쉼터에 이주하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문제나 피해 상황을 고려한 자립 대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방식의 대안에 머무르게 된다. 또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지원 확보에 초점을 두게 되어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비스 분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접근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심층면접으로 연구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이 적합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과정에서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고 쉼터라는 공간 안에서 자립을 준비하며 겪는 현실 문제를 수량화된 데이터로 인과론적인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닌,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이후 쉼터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경험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맥락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객관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여성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 사회적 권력관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정희진, 2016). 질적연구방법은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여성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살려내어 가정폭력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인 맥락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자리(입장)로 가는 경험을 통해 이들의 삶의 조각이 아닌 전체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김미옥, 2007).

셋째, 질적연구는 여성의 쉼터 경험을 가정폭력과 자립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을 연결 지어 이해할 접근방법을 제시해준다. 설문지와 같이 표준화된 자료수집 도구는 사회적인 맥락을 읽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관찰,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더욱 융통성 있고, 구체적인 경험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다(메이슨, 2010). 구체적인 경험이야말로 거시적인 체도를 응축하고 있는 자료이다(김인숙,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여 폭력으로부터 탈출 이후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해여성의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었고, 그러한 경험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보호시설 거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이 이들 여성의 취업 및 자립에 기여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쉼터 거주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가정폭력피해 경험과 보호시설 거주 경험이라는 맥락은 여성들의 직업훈련, 취업, 자립의 경험에 특수성을 부여할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이 부여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과 취업 및 자립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예비면접은 개인별로 현 입소자는 쉼터의 상담실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퇴소자는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입소자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 면담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가정폭력, 쉼터경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질적 연구 방법의 인터뷰에 관한 문헌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경험, 쉼터입소 과정과 생활, 쉼터에서의 취업관련 프로그램 이용, 취업계획, 퇴소 이후의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1차 질문지 작성은 중심질문 30개를 선별하고 각각의 질문에 1개~3개의 하위질문을 구성하였다. 2차 질문지는 연구자, 질적논문 전문가, 학위논문 교수님과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이 중복되거나 연구 문제와 거리감이 있는 질문은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 과제에 보다 가까운 중심질문 총 12개를 최종 선별하였으며 질문지는 인터뷰 전에 미리 제공하여 인터뷰 과정에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하위질문을 통해 질문을 구체화 하였다.

본 면담은 대상자가 선택한 장소로 쉼터 상담실과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에 거쳐 진행되었고 기간은 준비과정을 제외하고 면담에만 총 한 달이 소요 되었으며 이 기간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 전화통화와 추가 면담을 통해 충분성 확보를 하였다.

면접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된 면접내용을 바탕

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접 중에는 음성에 포함되지 않는 비언적 표현도 함께 메모하고, 면접 직후에는 면접 장소의 상황과 분위기, 관찰내용, 연구자의 느낌 등을 필드 노트로 작성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단계와 주요 질문 내용을 <표 3-2>와 <표 3-3>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2> 자료 수집 단계

단계	자료수집과정	자료 수집 내용
1단계	예비면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과정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
2단계	1차 질문지작성	중심질문 30개를 선별하고 각각의 질문에 1개~3개의 하위질문을 구성
	2차 질문지작성	질적연구 전문가, 종자사의 의견과 학위논문 교수님의 지도 내용을 반영하여 질문이 중복되거나 연구문제와 거리감이 있는 질문은 삭제 및 수정
	최종 질문지작성	중심질문 총 12개를 최종 선별과 하위질문 구성
3단계	본 면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연구 참여자에게 배부 후 심층 면담 실시
4단계	추가 면담	충분성 확보를 위해 2~3회 추가 면담 · 전화 실시
5단계	전사 작업	녹취된 면담자료 전사하고 필드 노트 반영
6단계	1차 요약	핵심 내용 1차 요약
7단계	2차 요약	핵심 내용 2차 요약, 의미단어 추출

<표 3-3> 주요 질문

구분	번호	주요 질문 내용
심 층 면 접 질 문	1.	가정폭력(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집을 떠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3.	집을 나올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4.	쉼터에 머물기까지의 연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5.	쉼터 거주기간 동안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6.	쉼터에서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7.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 직종이 반영 되었나요.
	8.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현 취업 상태는 어떠한가요
	9.	쉼터 거주기간 종료 후 거주지 선택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10.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1.	퇴소한 이후 쉼터의 지원서비스는 어떠했나요.
	12.	자립을 위해 남겨진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한 모든 기록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자가 직접 문서로 생성하였다. 심층면접 녹음파일을 반복적으로 듣고 면접시 메모한 필드노트(field note)를 참고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심층면접 당시의 상황이나 참여자의 감정 상태와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을 기록하였다. 녹취록을 생성하고 기록을 읽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고 원자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과대하게 해석하지 않고, 문헌고찰을 통해 획득한 선지식의 개념이 분석을 주도하지 않도록 면접 이외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

가정폭력, 쉼터, 자립이라는 3가지 개념 틀에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자료로 도출된 개념들을 공통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음성 자료를 문서화 한 녹취록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분석하였다.

패턴들 사이의 연관 관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패턴들을 분류하여 자료를 범주화하는 범주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분석의 전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맥락을 비가시화하거나(정희진, 2016), 참여자들의 언어를 참고하되 단순히 옮겨놓는 것(김인숙, 2007)은 지양하였고, 범주화 과정을 꼼꼼하게 메모하여 원자료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같은 범주 속의 사건이나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구별되는 범주와 패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은 질적연구 분석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면접에서 녹취된 내용을 필사하여 연구자가 줄 단위로 분석하였다. 주요 개념들을 찾고, 유사 개념들을 함께 묶어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범주화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여 상위·하위 주제로 제시하고 다음의 <표 3-4> 분석틀에 제시하였다.

<표 3-4> 주제별 분석틀

주제	상위주제	하위주제	세부구성단어
가정 폭력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폭력을 단절함	지속, 반복되는 폭력	절망, 고통, 슬픔, 자살충동
		술과의 전쟁	중독, 우울, 이기적, 가스라이팅
		안전한 가정을 위해 참다	아빠니까, 인내, 용서, 기대, 보호
		2차피해. 자녀학대	가부장적 사고, 학대, 신고, 후회
		준비되지 않은 탈출	포기, 반성, 두려움, 생존, 면접교섭
쉼터 생활	폭력의 피해 쉼터에 머물다.	안전한 쉼터를 만나다	안심, 탐색, 연계, 의심, 신변보호, 정보부족, 비공개
		물품지원과 식사준비	생활비, 취향, 당번제, 식비
		편안함과 답답함이 공존하다	내방, 귀가시간, 외출일지, 낮선환경
		공동생활과 타인과의 피할 수 없는 마찰	텃세, 스트레스, 소음, 프라이버시
		심신의 안정을 도와준 프로그램	안정, 감정공유, 성취감, 이해, 참여
자립 준비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다	변화시도, 재미, 욕심, 무기력 극복
		적성과 취향	반영, 현실과 괴리, 교육비, 장기간
		일자리의 한계	직면, 역량, 자신감, 준비부족
		기한이 정해진 쉼터 거주	혼란스러움, 초조함, 압박, 이사
		거주지 선택	선택의 한계, 자녀전학, 쉼터근처
쉼터 퇴소	자립을 위해 새 등지로 떠나다	자의반 타의반 퇴소	이혼, 자립지원금, 안전 미확보
		모든 도와주던 쉼터 이전 홀로	설익은 자립, 외로움, 고립
		공동생활을 벗어난 생활	자유, 허전함, 활기참, 어려움
		지원에서 배제된 서운함	상당꿍김, 비교, 도움, 중재 필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다	생계비증가, 퇴소후회, 자활, 구직
나를 찾다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	자조모임을 통해 의지가 되다	퇴소자모임, 공감, 낙인감, 연대감
		선배 퇴소자의 자립성공에서 희망을 보다	거주지방문, 롤모델, 가능성, 선택
		취업과 창업 업그레이드	성취감, 장기적지원, 가능성, 꿈
		거주지의 변화가 책임감을 키우다	부담, 자발적 생존전략, 기회
		나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다	심리적치유, 감사, 삶의 원동력

자료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경험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틀을 구성한 자료임.

### 제3절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 윤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료수집 시 사용될 방법인 녹음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본에 대해 전사를 하며 연구가 종료되면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최종본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신지 않아 비밀이 보장되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터뷰에 응한 후라도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에 진행됨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제시한 후 서명을 받았다.

둘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이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경험을 포함하고 있고 자기 고백에 가까운 내용으로 진행 과정에서 예민한 반응과 아픈 기억의 소환이 버거운 참여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질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연구 주제와 벗어나 대화로 환기를 시킨 후 인터뷰를 이어가기를 반복하였으며 답변을 꺼려하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참여자의 상처에 공감과 위로를 통해 부정적 정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쉼터 이용 경험과 지원체계를 통해 자립까지의 여정을 편견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이해를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가정폭력 상황, 쉼터에서의 경험, 자립의 과정, 쉼터 퇴소 후 현재의 삶,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 제1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폭력과 단절하다

#### 1.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탓에 대부분은 충격적인 사건을 두려워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재경험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우울과 불안·두려움 등으로 인해 항우울성 약물이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신체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온몸의 경직과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장기간 노출된 폭력 장면에 대한 회상, 혼란한 감정, 분노, 타인에 대한 공격성들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 여성들의 의지로는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폭력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폭력에 대해 순응하며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참고 지냈지만,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저에 대한 거는 사소한 것들이나 그게 그렇게 큰 거는 없고 이제 아득하고 애 아빠가 심하게 싸우는 상황이어 가지고 선을 넘었죠. 남편은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쫓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요 뭐 떠다 달라 부터 그날도 일 다녀온 나를 이것저것 시켰는데 아득이 이제 이런 모습이 너무 지켜워서 지켜서 그렇게 떨릴 수도 있

는데 안 치웁 거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가 나서 아등을 폭행하고 중학생인 아등은  
 쓰러져 있는데도 농약병을 들고와 같이 죽자는 식으로 이제 달려들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게 됐죠. <참여자 1>

참여자 1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만나 동거하다 결혼하게 되었고 1남 2녀  
 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노동과 운송 일을 했으며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는  
 말이 없이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했으며 술을 마시고 만취한 날이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병원에 갈 정도의 폭행이 아니면 사소하단 말을 할 정도로 폭  
 행이 일상적인 날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들 두 명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신랑이 자고 있었고 게임을  
 하다가 셋째가 지고 있어서 막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소리에 신랑이  
 자다 깬어요. 깨서 신랑이 나탄서 우리 셋째 아등을 팼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너무 한가 나서 큰 딸이랑 저랑 소리를 질러서 진정시키고 신랑을 방으로 들여보냈  
 는데 셋째 아등이 아빠를 신고했어요. 신고하면서 경찰 올 때까지 우리가 안 말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애등을 안 말게 하려고 제가 몹으로 막아서  
 제가 더 말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말긴 했는데 여자 애들은 다행히 별로 안  
 말았었던 것 같아요. 딸들도 어쩔 때는 말았는데 큰딸은 초등학교 가니까 눈치를 보며  
 때리지는 않고 혹시 신고 할까 봐 조심한 것 같아요

남편 키가 183센티나 되고 등치도 커요. 저희 아이들은 다 작잖아요 그건 아이들을  
 허구헌날 일주일에 2~3일은 소리지르고 때렸으니 …… 그래서 크집 못했나 봐요 근데  
 신랑이 폭력 집안에서 자라서 그 영향이 준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가족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 2는 자활 근로를 하고 있으며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에 대한  
 폭력도 심했지만 자녀 학대로 여러 차례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 허리띠, 몽둥이, 손을  
 이용해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제약하고 핑계를 대어 학대를 했으며 특히  
 아내가 없는 사이 자녀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자녀에게는 아빠의 자리가  
 필요할 거라는 참여자2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고소 취하를 해줬었다고 한다.

신체적 폭력으로 크게 있었던 건 두 번 있었고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갔고 두 번째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거야 주먹으로 계속 얼굴을 계속…… 전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낯은 배를 차거나 이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얼굴만 때린 거예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자기를 때려봤다는 것 때문에 이제 포인트가 거기에 꽂혀서 얼굴만 때린 것 같아요. 눈빛이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앉아 있고 신앙은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쳐다봤을 때 이제 짜려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짜려 봤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만 계속 때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살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신앙이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면 조금 확인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의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씬터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제 저는 신앙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전 집을 가지러 집에 갔는데 혹시나 이제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갔는데 출근을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마음이 딱 놓이면서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건가……(중략)

그 첫 번째 큰 폭력이 있었을 때 제가 1366에도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병원 가라고 했는데 차를 막아서 병원은 가지 않고 근데 머리가 이제 계속 아팠었어요. 머리를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고 멍도 들고 했는데 그냥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때는 아이가 유치원 갔을 때 일어날 일이고 아기가 곧 볼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뭉툰으로 때린 적도 있고 욕하거나 이러면 뭐 물건 던지거나 목을 조른 적도 있어요. 그러다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게으 쌓이고 쌓이고 이제 묵히고 묵히고 자기 마음이 정기가 되면 그때 크게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한 2년마다 같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참여자 3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준비를 하던 때에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지내던 중 30대에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평소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으나 손에 권 것이 없이 죽을 수가 없다고 하며 아내와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언변술로 포장을 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반듯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행동하나 집에 오면 온갖 스트레스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폭행이 이어졌으며 씬터 입소 당시에도 폭행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의 폭력은 첫아이 임신 중기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술 취해서  
 먹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때리던 것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웅면서 이제 전전 심  
 해졌고 아기 운다고 조용히 시키라고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아기를 젖 먹이다  
 가 잠들었다고 그날은 죽도록 맞았고요

저 임신 시작 때부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루에 헛구역질을 몇 번씩  
 많이 하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또 애기한테 분유를 먹이지 못하게 했어요. 젖이  
 부족한지 애는 딱 웅어대고 그래서 분유를 조금 먹였으면 싶은데 절대 안된다고……  
 (중략) 그래서 저는 미역국이랑 국 이런 걸 먹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느낌인 거  
 예요. 맨날 긴장해 있고 낮에 조금이라도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면 잤냐고 전하듯  
 딱 목하고 밖에서 일하면서든 전하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기는 밤에도 아기 우는 소  
 리에 잠이 몇 번 깬고 일 나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자냐고 잠이 오냐고  
 이제 더 심해지길래 한 번씩은 들이받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더 그걸로 혼이 났죠.  
 아예 다시는 못 그렇게 하려고 ……(중략) 표창 던지듯이 제 얼굴 옆으로 맨날 젓가  
 락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벽에 꽂고 이러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 이제 딸을 쫓 잘 듣고 잘 살아야지 아기 두고 어떻게 도망갈 수는 없겠고 도망  
 가도 소용없을 것 같고 너무 무섭기도 했구요. <참여자 4>

참여자 4는 긍정적이며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3명의 딸을 두었다. 12년의 결혼  
 생활을 배우자의 폭행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자녀양육에 서투르  
 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기가 기어가다 머리를 다치면  
 엄마도 머리를 맞고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술을 먹고 와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을 경험  
 하기도 했으며 고막이 터져 병원치료를 요구했으나 외출을 금지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했다고 한다. 뒷통수를 세계 맞아 눈이 잘못되자 겁이 난 남편이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려 갔지만 혹시 남편이 때렸다는 말을 할까 봐 감시를 했다고 한다.

남편은 진짜 딸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 잡아서 이제 언어 폭력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참여자 5>

참여자 5의 남편은 자수성가한 대기업 직장인으로 돈에 집착이 강했으며 그로  
 인해 기본적인 자녀양육에 필요한 과정들을 준비해주지 못하는데 대한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없었으며 오로지 돈에 대한 집착으로 대도시에 집을 가진 거지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이 심했으며 특히 딸의 자살 기도를 경험하고도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치료 상담을 요구했지만 쓸데없는 짓이라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체적 폭력도 물론 힘들었지만 정서적, 경제적 폭력이 더 심한 사례이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남편의 폭력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내 잘못으로 폭행을 당하는 거고 나만 잘하면 남편이 때리진 않을 거라며 폭행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두기도 하였다. 이는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피해자는 모든 잘못이 본인에게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의 개선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에는 아이의 아빠라는 존재를 아이 곁에 두고 싶은 온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 때문임을 인터뷰 과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 2.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폭력 경험을 통한 스스로 자각에 의한 가장 큰 인식은 ‘참고 살아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참여자들은 그런 노력들이 헛수고이며 남편이나 가정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어느 순간에 자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엄마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 줄 때 탈출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냥 평범한 아빠요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책임도 져주고 따뜻한 분위기 맞히고, 애들한테도 한 번씩 맛있는 것도 먹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빠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으니까 애들은 점점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과 싸움을 하고 그것도 중학생인 아이한테 쓰러져 있는 애들을 나뭇가라 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안티겠구나 이리다 애들 버리겠구나 싶었어요. <참여자 1>

참여자 1은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고 이번 계기로 참지 않고 떠나는 것이 아이들과 본인을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내 능력으로 어쨌든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용기가 났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엄마가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라고 생각하며 결혼생활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멸감도 들고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어릴적 부모없이 자라며 외로웠던 기억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지우고 싶지 않았었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아이가 다섯살때쯤 제가 신앙이랑 싸우다가 제 목청이 쭉 그때는 저도 말을 했던 시기니까 불청이 높아지면 아기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제 목청이 높아져서 신앙이 더 한가 나면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되는 걸 아니까 말을 아예 안하고 참았지만 참으니까 더 폭력이 심해졌던것 같기도 해요 멍멍해진거죠 마지막에 폭력을 참지 않고 떠난 계기가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폭력들이 있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또 참고 그 상황을 그냥 버텼는데 그건 아이 때문이었죠.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딱 그거 하나 미운 감정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쭉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기 때부터 아빠의 나쁜점은 안보여 주려하고 감춰주려고 했었는데 8살이 쭉 넘어가면서는 은연중에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걸 쭉 안 것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 2의 자녀는 저녁에 잠자다 깨어 한참을 우는 일이 잦은데 학교에서 친구가 안 좋은 말을 했다는 등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만 아빠와 지내며 폭력을 마주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한 것 같다고 한다. 억압된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비워내는 중인 것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참여자 3은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아이에게 상처만 남긴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가식적으로나마 좋은 모습만 걸러내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아빠의 모습을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는 절대로 아빠에게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엄마의 입에서 아빠를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다.

아버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 되면 애들이 많이 두려워했어. 될 수 있으면 아버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늘 주눅 들어있고 결혼생활 총 14년인데도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폭행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 그동안에 고소도 여러 번 했다가 취하하고 그런 걸 또 반복했었는데 그러면 나아질줄 알았는데 마찮가지 더러구. 하지만 애들한테는 아빠잖아. 아버니까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아버이기 때문에 그냥 견뎌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애들이 신고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왜 고소를 취하하고 왜 그랬는지 제가 좀 한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걸 정말 아니다. 반성이 됐어. 후회되고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정말 아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안 봐야겠다. 후회는 없어.

이런 생활 자체가 정말 우리가 우리 애들이 잘했다. 신고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 <참여자 3>

10여 년 넘게 남편의 폭력을 견뎌오며 참지 않고 집을 나올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이유는 <참여자 1> 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애들한테는 아빠잖아요”라는 말처럼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 참여자의 당연하지만 어려웠던 소망이었을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고 애들도 4명이나 낳았고 내가 지금 여길 떠나서 이보다 더 나은 뭔가가 보장된 것도, 자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도, 자신도 없으니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엄마가 고소를 취하해 줄 때마다 절망을 느끼고 엄마에 대한 원망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 왜 아이들에게 아빠의 처벌을 원하는지 고소 취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후회한다고 했다.

죽도록 맞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딱 기억이 자세히 없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맞다가 아기가 떨어졌어. 근데 이제 때리면서 내 아이 맞냐고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유산이 됐잖아. 병원을 혼자 갔다가 유산입니다 하고 왔는데 밖에서 친구랑 족발을 먹다가 들어온 거예요. 저를 또 때리러 이제 너 뒤졌어 하면서 막 오니까 저는 이제 도망을 나갔죠. 하혈을 엄청하는 채로 도망을 나갔는데 다음날 저한테 잘못했다고 엄청 빙어서 다시 들어와 살았는데 나중에 또 저한테 네가 그때 애들 놔두고 집 나갔었잖아 이러면서 계속 괴롭혔어. 그때 또

맞다가 고막이 터져 버려서 병원 쫓 가야 될 것 같다 했더니 또 기혹 낚기려고 그러  
 냐고 맞을 때도 진짜 죽을 것 같고 무서웠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는 두려움도 컸어  
 요. 이대로 볼구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요

한번은 끓고 있는 떡볶이도 막 부어버리려고 하적도 있구요 자기가 주는 100만 원  
 안에서 식비, 애들 학용품비, 차비, 반찬은 또 제대로 차려라야 되고 항상 자기 술  
 고기 이런 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한내는데 100만 원 안에서 하는 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받은 부분을 조금 더 잘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  
 을까 저 사람이 나이 40살 이상 되면 쫓 낚자는 성격이 수그러든다는데 그 40만 기  
 다렸어요. 정말 근데 40이 넘었는데 아닌 거예요. 더 심해져 있고 그래서 진짜 무서  
 웠던 적이 있었어요 시골집 갔다가 남편은 피곤하기도 해서 한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집으로 엄청 오랜만에 가서 또 언마가 안 계시니까 뭔가 애뜻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모였고 이래서 너무 반가웠기도 하고  
 이제 뭔가 서운해서 그냥 쫓 헤어질 때 쫓 웅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웅었  
 다며 한층 내다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더 한가 더 치면 이제 아예 소리지  
 르고 이제 폭력이 나오는데 갱자기 차를 어느 주유소에 멈추더니 큰애가 갱쟁이  
 였을때데 저 멀리 막 달려가더니 엄청 크고 긴 강목인지 뭔지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죽일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아기를 안고 막 주유소로 뛰어 들어가서 달려주  
 세요. 신고 쫓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안 해주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고 하더  
 나구요 그 사람들도 무서웠나봐요.

결정적으로 제가 갱기로 계속 아파 있었어요. 나는 병원 갈 돈이 없어 이렇게 많  
 을 했는데도 애들이 와서도 또 아빠 언마 병원 쫓 데리고 가줘 언마 병원 갈 돈이  
 없다고 방금 언마가 얘기했잖아 이러니까는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하라며 아이들을  
 멀치며 팔을 꺾었어요. 그때의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든거 같아요 뭘 수를 내서든 여기서 나가야겠다. <참여자 4>

참여자 4는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한 사례이며 인터뷰 과정 내내 기억을 되살  
 리며 힘들어 했다. 하지만 잠재된 상처를 힘겹게 토해내면서도 가정폭력의 실상  
 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4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막내  
 딸로 귀여움을 독차지 하며 성장하였으나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시며 갑자기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남편을 만나 사랑받으며 의지하고  
 살고 싶었다고 한다.



결혼생활 내내 상상하기 힘든 폭력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위에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었다고 했다. 남편에게 당한 폭행의 흔적(머리카락, 폭행상처 사진)을 친구의 권유로 보관하였다가 버리고 또 보관하고 하였지만 그때 마다 내가 마음 먹고 남편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자 이런 것 갖고 있으면 신경쓰이고 마음을 잡을 수 없으니 버리자 라며 폭력의 이유를 피해자인 본인에게서 찾으려 했다고 한다. 주유소에서 극한의 상황에 있었지만 어렵게 통화된 친정 아버지는 경찰에 연락 하라고 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다독이며 그냥 보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공권력의 도움을 여러번 청 했지만 피해자에게 필요한 분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혼 과정에서 경찰출동 기록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현실이자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반복되는 폭력을 어떻게든 줄이거나 아니면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출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는데 내가 이런 생활을 아이들한테 되물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혼 인해서 아이들한테 너무나 큰 불행감을 맛보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물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잘못 갔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활을 막은 것이 제 잘못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에 시달렸죠.

솔직히 말해서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저를 죽였을 거예요. 그거는 장담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죽는다면 아이들은 살 수 없고 또 그런 남편인 걸 알면서 아이들을 두고 나볼 수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야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경정적인 계기랄지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큰 아이의 투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뭔가 트랩에 갇힌 것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5〉

참여자 5는 정서적 교감이 없는 가정생활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정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의 위계와 공동의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의 교류가

없이는 결코 하나의 집합체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으며 특히 일방적인 경제적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통제의 구실로 삶은 경우 부작용은 컸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되었다. 참여자 5의 자녀들은 재능이 많은 아이들로 주위의 칭찬과 부러움을 많이 샀지만 때에 맞는 원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래와 비교당하는 사이 부모가 기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아이의 치료 과정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걱정하고 심리치료 등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치료를 막아 그에 대한 원망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가족으로서의 함께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3. 준비되지 않은 탈출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결혼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살아왔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힘들어 했고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었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탈출을 감행하였다.

집을 나뉘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당은 이제 자금이 먼저 마련돼야 되니까 제가 원래 일했던 편의점을 그만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돈이 좀 모아지면 나뉘어야지 했는데 아들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니까 진짜 아예 뜻하지 않게 돈도 없이 급하게 나뉘어야 되는 상황이 된거죠 아버지를 신고했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옷가지나 이런 것도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가 경찰분들 동반해서 애들 옷가지랑 물건들은 어느 정도 챙겨왔는데 제 옷이 집에 가서 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 아버지가 버렸던가 아니면 어디다가 숨겨 놨다던가 했겠죠 제 옷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항당했지만 막아서 달라고 할 수 없었고 수중에 10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옷을 사는데 쓸 수 없었는데 센터에 오니 옷도 주고 필요한물품을 주셔서 다행이었죠. 집을 나올 때 제 수중에 10만원 있었구요 긴급생계비는 한참 걸렸어서

남편 보험 해약하고 카카오에서 비상금 대출 30만원 받았어요 <참여자 1>

참여자 1은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과정에 아들이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지며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냐는 엄마의 물음에 엄마 맘대로 하라고 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던 엄마에 의해 고소가 되었다. 고소 사실은 인지한 남편은 가만있지 않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서 아들이 퇴원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거주지에 가해자가 머무르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폭력을 피해 갈 곳이 없어 지인들 집이나 모텔을 전전하다 결국은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복귀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을 연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냥 문밖 나왔죠 신고 있던 양말호... 아무 준비도 경제적으로도 통장에 잔고도 없었어요. 30만원인가 40만원 정도 인것 같아요. 폭력 상황이 다음에 또 발생하거나 남편이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집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안 옮겨온 것 같아요. <참여자 3>

참여자3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무직 상태가 되면서 자활근무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자녀가 4명이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여기저기 빚이 많은 상태였고 희망이 없는 삶에 많이 지친 상태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있었는데 애들한테 이제 뺄을 할까 뺄까 하고 있었고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언마가 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켜보기로 했고 그래도 일단 너희한테 아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마랑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어떡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아빠 너무 싫다고 큰애가 그날 언마 우리 그냥 나가자 우리 아빠랑 살지 말고 가자 어디든 가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셋째도 아니 둘째도 가자 이려고 셋째는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하루 더 생각을 해볼까 하다가 너무 속이 터지니까 딱딱하고 똥똥하고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종이에 1366 이거 써진 거를 경찰한테 받았었는데 그 1366번 제가 따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결심을 이제 거의 고치고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참여자 4>

참여자 4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서 아빠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조용히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아빠랑 살기 싫다고 하자 고민하던 중에 경찰로부터 받았던 1366이라는 전화번호를 따로 기억해 두었다가 용기 내어 전화하고 상담을 여러 차례 하다가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남편이 귀가하기 전 서둘러 집을 나서게 되었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각자 메고 옷 가방을 챙길 여유는 없었지만 아이들 추억이 담긴 앨범은 모두 챙겼으며 수중에 2만원이 재산 전부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상담원의 말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고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참여자 4의 표현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집에서의 탈출이 얼마나 절박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준비라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지내고 보니 급전적인 준비가 가장 먼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두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에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갖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모두 남편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를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은 상황이라 그걸 제가 뺏을 때 이제 눈 킁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 ...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 돈을 빼서 쓴다면 남편은 아마 진짜 돌아 가지고 저를 찾으려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여자 5>

참여자 5는 딸아이의 투신 사건을 계기로 남편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한 계기로 가정상담센터 간판을 보고 찾아가면서 희망이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망설이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에게서 한푼도 빼내 올 수가 없었고 아이들을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으나 아들이 5학년일 때 엄마가 더 이상은 힘들다는 상황을 설명하자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면 가자” 라며 동의를 해주었고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 컴퓨터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다행히 친언니의 원조가 있어서 준비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탈출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여성의전화 상담원의 연계와 지인의 원조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다.

## 제2절 폭력의 단절을 위해 쉼터를 선택하다

### 1. 거취문제 해결과 안전한 쉼터를 만나다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신변 안전 때문에 시설 노출을 불가하며 모든 업무 또한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정폭력상담소, 1366, 경찰의 연계 등을 통한 입소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쉼터는 가정폭력으로 동네파출소 신고하면 거기에서 1366을 알려주더라구요. 경찰도 도움을 주고 안신 숙소가 있다고 해서 쉼터에 오게 됐죠 상담하면서 여기 들어오려면 어쩌면 아득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학교 2학년 남자라 청소년 보호시설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큰 애까지 거기다 놔두고 왔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 알아보시다가 여기 이쪽에 가족 쉼터가 있다고 하시면서 공동생활이라 불편한 점이 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집만 아니면 된다고 했죠. 불편한 거야 뭐 어차피 우리가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니까. <참여자 1>

참여자는 폭력을 견디면서도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고 한다. 다행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 이해 해주어 함께 지내게 되었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니 쉼터로 연계해 주더라고요. 만약 저는 쉼터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오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집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런 숙식도 제공해 주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법적 지원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여자 2>

아이들과 막상 집을 나왔으니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경찰의 연계로 쉼터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쉼터의 지원서비스에 만족해 하고 있었다.

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1366 가서 갈 곳도 없고 남편이 찾아올까 바 겁이 낫다고 했더니 보호시설로 연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컴퓨터 오기 전에 남편이랑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겁나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대도 다른 지역까지 갔다고 생각은 못할 거 같아서요. 그대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 남편이 찾아올까 겁이 나긴해요. <참여자 3>

비공개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매우 두려워했지만 일주일간의 외출 자제요청을 받고 신뢰가 생겼다고 했다. 불편하지만 보호하려는 취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컴퓨터의 규칙이 다행스럽게 여겨졌다고 했다.

남편의 폭격으로 경찰에 신고를 여러번 했지만 돌아오는 대담은 남편과 화해를 해라는 식이었죠. 그 때 마다 얼마나 심장이 크던지...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기 싫더라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몇 번 상담했어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컴퓨터에 연계해 달라고 했죠.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찾아와도 대문 앞에서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진짜 그게 되게 너무 안전하다는 거 보호받고 있다고 많이 느끼죠. 저녁에 무슨 소리만 나도 남편이 방마다 열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 깡깡 놀랐는데 당직 선생님이 항상 계시니까 안심이 되요. <참여자 4>

참여자 4는 공권력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실망하였고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좌절감에 탈출을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상담소를 찾아오며 누군가는 내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안도와 희망이 보였다고 했다.

그때 처음부터 말을 해 주지 않았어요. 여성의 전화는 그전에도 갔었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왔었고요 너무 당당해서 1월이나 2월쯤에 제가 전화를 해서 계속 울었는데 그때 그 전화를 받아주신 선생님이 베테랑이셨어요. 전과는 달리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오세요. 이따 와서 저랑 얘기 나눠요 해서 시간 장아서 남편 눈을 피해서 갓신키 또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2주에 한 번 꼭로 가서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런

식으르 해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그 정도였을까요. 하여튼 그때쯤에 선생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하더라도 그런 거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로 적박한 상황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딸 투신 이야기 제 이야기 주호 그런 거죠. 하니까 여기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나이가 10살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을 알아보면 도중에 남자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여기 여기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 지역은 아주 낯선 곳인데 한번도 왜 본적이 없는 그리고 이동을 전학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생각했고 적응하기까지도 너무 낯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친구를 만드실 수 없을 수도 있을텐데 하지만 선택할 수가 없었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참여자 5〉

참여자 모두는 쉼터 선택이 가장 우선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남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이 23개소 밖에 되지 않아 원 거주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2022a)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인천, 울산, 경기, 경북에는 가족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외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소 동반 아동의 연령이 3세~6세미만 29.7%, 6세~12세 41.3%, 13세~18세 14.3%로 학령기 아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니던 유치원이나, 학교를 떠나야 하며 환경의 변화와 친구와의 단절의 경험으로 상실감, 우울감을 겪기도 한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겪는 환경의 변화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원 거주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확대·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 2. 컴퓨터 생활을 시작하다

컴퓨터 입소 여성들은 제각기 아픈 기억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피해의식이 강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라는 동료애와 자매애 또한 끈끈한 가족애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넘어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며 갈등을 피해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컴퓨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의 상담과 보호 덕에 많이 안심  
 이 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참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매일 이유 없이 폭력고 맞고 사는 거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일찍 알았더라면  
 뭘도 마음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컴퓨터에 와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  
 으니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마음 풀이면서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컴퓨터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 졌어요. 감사하죠. 또 언제든지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딱딱하기만 했던 재판 이혼 준비도 여기 와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두가 안 나고 돈도 없어서 ‘나는 이혼은 못 하겠구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담  
 원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며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눈물나게 감사해요.  
 <참여자 1>

누구든 이렇게 까지 도와줄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고, 혼자서는 어떻  
 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이혼소송을 컴퓨터의 도움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마운 것은 한 두 개가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오는 사소한 문제들이 이었다.  
 잠잘 때는 좀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불빛도 없어야 되고 소리도 없어야 하는데 전  
 반적으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12시 넘어서까지 막 쿵쿵쿵 거리고 아이 우는소  
 리도 들려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같이 이용하는 세탁기 냉장고를 칸을 나눠 사  
 용하며 간식이 섞여 오해를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건 다 지원도 해주시고 웬만큼 어떤 배운다 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본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어



짬뽕 같이 또래랑 늘 수 있는 또래들이 있어서 그리고 같은 다른 어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안정감이 있어요. 워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방을 얻어서 나갔다면 이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어련애들 데리고 혼자서 키울 때는.....

가장 좋은건 전신방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방이 제일 맛있는 방이 낡이 해준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요. 숙식 제공도 되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거리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비밀보장도 되니까. 비공개 시설이라 남편이 찾아볼 수 도 없고요.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다고 할까요. 심적으로 안정을 찾으니깐 몸도 경직되어 있던 게 풀렸는지 처음 여기 왔는데 온몸이 다 아팠어요. 평소에 안 아팠던 곳까지 싹 다 아프고 나니까 그 후로 몸이 가볍더라고요. 습서에 입소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심적으로도 안정적이게 되었고 또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도 잡히고요.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저도 좀 개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방에 북썩북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도서관에 가는 것도 혼자 있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참여자 2>

남편이 식사에 예민한 편이라 식사시간에 메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고 소식을 하느라 눈치가 보였었는데 습터에서는 점심을 조리원이 매일 다른 반찬으로 조리해 주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식자재에 대해서도 집보다 훨씬 좋다고 하였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던 참여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물건들을 공유하고 공간을 함께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같은 아픈으로 오신 분들이 다 보니까 서로 눈에 안 보이는데 챙겨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낯선 환경인데 같은 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뭐 해줄 부분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의 지지가 돼서 그런 게 많이 유지됐던 것 같아요. 불편한 점도 있죠. 여기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어른 위주인 식단이 나오다 보니까 주먹 같은 데는 애들마다 다 각각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먹이고 싶은건 많은데 ... 또 킷출 일지 쓰는게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뭐

나고 해야 되나 쓰고 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일이 쓰고 뭐 하고 하는 게 갑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쉼터에서 저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건데 의심 받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직도 불편하긴 한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는걸 조금씩은 이해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구요

상담선생님은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 주는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신앙이랑 같이 살 때는 너무 저 생활이 너무 버거웠어요. 신앙이 도탁 주는 분이 아예 없었어요. 일 갔다 오면 집안일이 쌓여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다 혼자 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말 안 해도 도탁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이들은 불만이 저희 아이들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아이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이 없고 다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냈거든요. <참여자 3>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지지적 관계로 발전하고 연대의식이 생기며 아이들에 대해서 만큼은 공동육아처럼 서로의 자녀들을 돌보고 챙겨주게 되면서 돌봄서비스는 쉼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 시설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사실 쉼터에 오면서 걱정이 많았죠 근데 이제 사실 생각보다는 너무 깔끔하고 다 각 가정마다 방이 따로 있고 이런 것도 너무 다행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애들도 호텔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행이다 싶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 방이 있죠. 감사였죠. 너무 감사했고 다행이다

남편이 찾아와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 안전하다는거 보호받고 있다는 ... 입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한밤중에 당직실에 찾아가 우리 남편이 정말 가깝히 있을 사잖이 아니다. 언제든지 여기 쳐들어올 수 있는 사잖이다. 남편이 엄청 무서운 사잖이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는 경찰이 늘 가까이 있고 CCTV도 많고 잠 안자고 지킴 테니 얌려 말라는 말쑥에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일주일 지날 때 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아 또 도망가야 되나 생각할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날도 덥고 했는데 여기서 뭐 가르쳐주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첫날 저녁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며 시간 안에 먹으라는 말이 너무나 서운

하고 무언 하더라구요. 이제 또 뭐 하려고 그러면 태운 안 태운 이러시니까 이제 그  
 것도 이러면 안 되구나 뭐도 하면 안 되고 딱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엄청 계속 읽었고 근데 이제 또 빨래 널러 가거나 분리수거 이런 걸 했을  
 때는 또 언니들이 쫓아와서 이거는 이렇게 버려야 되고 박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  
 게 우리는 버리고 있고 이게 여기고 이게 저기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계속 쫓아와서 서훈 하니까 약간 뭐 텃세 그건가 보다 생각도 들어서 혼자 움  
 기도 했었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참고 버티길 잘했다 싶더라구요. 맛있는  
 것도 같이 맛들어 먹고 여행도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주시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게 엄청 진짜 감사했고 아이들이 아빠는치 안보고 딸데르 뛰어 노니까 행복하더라구  
 요. <참여자 4>

호텔 같았던 쉼터의 공간에는 지켜야 하는 절대적 규칙과 앞서 입소한 선임의  
 방식을 강요 받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쯤  
 아이들은 이미 적응해서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보며 차마 딴  
 곳으로 가자는 말은 못 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규칙들  
 에 익숙 해지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동료와 모든 도와주려 하시는 종사자들의  
 모습에 마음에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한다.

저는 여기 몇 평 되지도 않은 이 방에 오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엄청나게 가졌습  
 니다. 쉼터 존재 자체가 희망이죠. 쉼터에 너무 감사했고 안전하게 내가 어딘가로  
 왔다.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에 굉장히 안도감이 들어서 행복했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는데 먹는 거 걱정 안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어요. 일단 1층에  
 내려오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 식비가 많이 들잖아요

힙들었던건 뭐냐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텃세였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치 않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하나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딱 휘두르고 작은 사회라도 이렇게  
 이런 권력이 막 눈밭을 하는구나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 정말 여기 있는 동안에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따뜻하  
 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시잖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애라는 취급을 받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고요. 나중에는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제가 낡  
 짝 옆드려서 그냥 했죠. 유별하게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 당번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리사가 없어서 들어 퇴출했다가도 시간되면 귀소해서 밥 해야 된다는 거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조가 돼서 밥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토요일 일요일조차도 아침에 6시에 일어 나가지고 밥 해야 했고 이런 거 힘들죠 저는 뭐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장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될 게 많고 절대적인 규칙 기준에 해왔던 그 특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종사자 중에도 계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 스펙히는 규칙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규칙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조차도 감사했거든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의 입소기간 동안 느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보호시설 안에 숙식이 해결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컴퓨터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서로 위안이 되며 남편과 격리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생겼으며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혼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결, 신변의 보호, 주소지 이전으로 자녀학교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일상에서 종사자와 수시로 대화·상담하며 입소자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애로 사항으로는 외출시간, 식사시간, 저녁시간 등의 규칙들로 불편하였고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되긴 하지만 남편과의 공동생활할 때 형성한 재산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당장 아이들의 학비와 생계비가 부족하여 지원받는 세대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으며 선지원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공동생활에서 불가피한 의견 충돌로 인한 불편과 개인 공간을 침해받는 문제, 공동 비품 사용에 관한 방식의 차이 등이 있었으며 취사원 고용 전에는 밥 당번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종사자에게 지나친 정서적인 의존을 하였다가 상처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 3. 쉼터 내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을 찾다

쉼터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가정폭력과 억압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녀들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억압 상황을 피해 심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물론 그녀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폭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제 2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도 있다(신재은, 2012). 이들은 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정폭력양상과 여성억압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각자 자신을 통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체의식과 함께 의식변화과정과 자립의 희망을 갖게 된다.

참여자들이 입소한 쉼터에서는 입소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여행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영화관람이나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입소자와 동반 자녀의 생일 축하하는 파티를 통해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사회공헌을 통해 아동을 연계하여 학습 및 놀이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문제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그 밖에도 성인집단상담, 아동집단상담, 지지적집단상담, 웃음효과치료, 심신회복캠프, 송년의 밤을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 상담 8회까지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방에 올라가면 다시 마음이 또 축 내려 가요.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생각나고 선생님이 제가 얘기할 거 다 들어주시다 보니까 그때는 딱 얘기하다가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상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짝 내려 앉아 있고 하지말 쥘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단 상담도 있지만 시간 맞춰서 하려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막상하면 즐겁고 그대인 딸은 개인상담 받고 많이 좋아했어인 변화도 있는 것 같고 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쥘 많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 1>

참여자들 대부분은 개인 심리상담 시간 연장을 필요로 했다.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혼인 지속기간 대부분을 폭력에 시달렸던 참여자들의 상처는 몇 회기의 상담으로 치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 상담을 하면 6회기는 쏠 짧은 것 같아요. 자기 노출을 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거나 근데 지금 다섯 번 했는데 세 번 정도는 신랑 얘기하고 두 번 정도는 여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어서 이제 뭘이 트이려고 하는데 6회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더 받고는 싶은데 제가 괜찮은 상태인지 저도 제가 안 괜찮은 상태인지는 조금 같이 안 와서 추가 연장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단 상담은 무언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잠시나마 폭력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지금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고 있는데 바쁘게 맞들어 줘서 좋고 내용도 알차서 다 좋아요. <참여자 2>

개인 심리상담의 장점으로는 상담자와 비밀리에 모든 이야기를 털어 놓으므로써 감정 쏟아내기를 통해 위로와 격려받는 장점이 있고 집단 상담은 나만이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점에 동료애를 갖게 되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 보는 시간에서 회복의 길을 찾게 되는 장점이 있다.

집단 상담 그게 그거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이렇게 맞들면서 생각을 하면서 안정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 하나 완성 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집단 상담에서는 처음 보는 앞에서 쏠 얘기하기 쏠 그랬긴 했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뭘 한마디인데 그런 말이 또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집단상담 그런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고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너무 좋은데 이제 막 우울한 시간 갖고 약간 더 그렇게 있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더 피해 다녔거든요. 그냥 일대일 상담 다니고 이런 거는 수다 떨러 가서 제가 엄청 열심히 말해 가지고 상담선생님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애나 모르겠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파악 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일상에서 살짝 이제 비어 나오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지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거나 그런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집단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저는 집단 상담보다는 일대일 상담이 훨씬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뭐랄까 좀 더 깊이 있게 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담 도움이 되었거든요 10회기까지 했을까요. 꽤 깊게 했던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을 하면서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제 그런 타인이 나를 향해서 공감해 주고 굉장히 같이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 때문에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거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제 얘기를 종종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는게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였지만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은 감사했어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쉼터 거주기간 동안 성인 개별상담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고 인지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자립을 위한 심리 안정을 찾게 되었다.

웃음치료 요가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건강회복을 돕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의 활력을 찾아 무력감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일정 여건상 개인의 일정을 다 맞추지 못해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 제3절 쉼터의 자립 프로그램을 만나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는 등의 ‘실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직업훈련 및 취업을 통하여 자립하고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욕구가 심화된다.

### 1. 자립을 위한 첫걸음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경제적 측면에서 취업 연계 및 임금상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직업훈련의 효과를, 개인적 측면에서 훈련생의 재발견과 성장 및 성찰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기존의 직업훈련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는 경력단절여성 일반 혹은 고령 여성 등의 특수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신나래, 2018).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폭력으로 취약해진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원 획득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을 의미하며, 사회와 가정에서 배우자 간의 권력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Macmilan& Gartner, 1999; 박언주·김효정, 2015; 신나래, 2017; 신나래·이영수, 2017). 입소자는 직업적성과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쉼터에서 연계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보통 입소 초기에는 가해자와의 안전한 분리,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해 상담에 집중하며, 입소자의 회복 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직업훈련은 입소자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탈폭력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남재욱·신나래·김봄이 2020).

제가 견정고시를 마치고 고졸 자격증을 따면 이제 취업하고 관련된 어떤 직업훈련이나든가 이런 걸 받을 계획은 있어요. 직업 훈련은 한식 조리사도 배우고 싶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배우고 싶어요 네일아트도 하고 싶기도 하고 싶고 바리스타도 하고 싶고 컴퓨터도 하고 싶어요. <참여자 1>



고등학교 다닐 때 남편을 만나 출산을 하며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학력 때문에 직업 선택에도 제약이 많았다. 항상 아쉬움이 남았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자녀에게도 떳떳한 부모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하다고 했다.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인데 재미도 있지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하나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하나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기분은 오랜만에 느껴 보는 것 같아요 당기 앞바닥 알아보고 있었는데 컨설팅, 워드, 세무회계 까지 취득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참여자 2>

공기업 취업준비까지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업을 포기했지만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의욕을 보이고 직업훈련이 꼭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정을 밟아 나갈수록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직업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에만 있다가 재미를 느끼니까 이것 저것 다 하고 싶었어요 아이티큐, 한글, 엑셀, 헤어, 네일아트를 했어요 목심이 많아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입소자들 처럼 네일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지켜 보시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배우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이제 배우고도 싶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기가 저송했어요 헤어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적성에 안맞더라고요 근데 지원비가 한계가 있는데 저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네일은 맨날 하니깐 차라리 네일 자격증을 따자 싶어가지고 이제 용기내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일 자격증반 학원 다녔고 그 다음에 실무반 그리고 그거 끝나고서 숙련증명장 푼 이거 배웠고요 수료증 나왔고 그리고 눈썹 문신 배우고 있고요 <참여자 4>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되었고 지속적인 센터의 지원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입소했을 때 이제 취업 훈련 같은 거를 하고 싶다면 뭐를 하나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때 권유하신게 요양보호사였어요 하지만 그건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한식조리사에 도전 했죠 일도 없었지만 다른 입소자들과 학원 같이 다닐 수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좋은 기회이니 한번 따봐라 저는 자격증이 하나 더 있으면 나쁠거 없고 또 60이 넘어서 조리사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그냥 그런 그냥 해보자 그래서 직업훈련으로 조리사를 수강했는데 푹 떨어졌어요

그러다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한다면 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근데 막상 사회복지사 부분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항상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과목당 얼마 그 다음에 뭐 학원 받는데 얼마 또 뭐 얼마 이래서 돈이 많이 꽤 들었던 것 같아요. 직업 훈련을 하기 위해서 1인당 할당된 지원비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은 지원해주시고 싶었겠지만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5>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훈련 직종으로는 정보기술자격, 전산회계, 세무회계,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커피 바리스타, 운전면허, 네일, 피부, 미용, 헤어, 도우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으며 쉼터 입소자에 한 해 제공되는 지원이다.

하지만 직업훈련 직종이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경력이나 적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원금의 한계로 일찍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피해여성의 적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직업훈련의 결과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

## 2. 현실에 맞춘 취업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거주지 노출, 낙인, 자녀양육 등의 특성 때문에 취업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 쉼터에 입소한 피해여성 연령은 40~49세가 23.8%로 가장 많으며 30~39세는 22.3%, 50~59세도 21.0% 나 된다(여성가족부, 2022). 입소자의 60% 이상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립을 위한

취업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벽은 일반 구직자에 비해 특수성은 가진 쉼터 입소자에게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용직 일자리로 제한이 되는 상황이다.

피해여성에게 취업은 생계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단절된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며, 주눅 들어 살던 시간으로부터 자존감 회복을 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지금 우선 할 수 있는거 찾기 알바 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면접을 봐도 연착이 많아요. 되더라도 쉼터 귀가 시간에 맞추다 보면 일을 할 수 없어요 통근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편의점 일자리가 공지가 올라온 게 다 야깡이에요. 아니면 아예 아찔이든가 아니면 아예 넘어가 버리든가 아동수당, 긴급생계비 다 해도 100만원도 안되는데 당장 보현에 휴대폰 요금에 아이들 용돈 돈 들어 갈 때가 천지에요 고등건정고시 합격하고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면 학교 급식업체에 취업해 보고 싶어요. <참여자 1>

대부분의 쉼터 이용 여성이 지갑조차 없이 맨 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당장 교통비나 소송을 위한 서류 접수비용 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직업훈련도 교육수강비 자체는 지원이 되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 드는 교통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나이, 무경력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트에서 계산원 등의 일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언마가 아프셔서 언마 식당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따로 직장생활의 개념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일하기 싫어한다고도 하는데 물론 제가 다른 사람과 많이 하거나 그런 성격이 못되긴 하죠. 그래서 주식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저하고 맞더라고요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긴 하죠 컴퓨터 자격증 취득하면 자황근로인데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다며 님당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목표르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현재 쉼터에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취업은 쉼터 이용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쉼터의 종사자가 개인적인 인맥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끝이나 뭐 이상을 쫓아 다니기 보다는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급한 거죠. 보육교사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세상에 좋은 직업은 많은데 그전 직업을 준비하려면 1년 이상은 걸렸는데 아이 4명을 그동안 어떻게 해온 혹시 이혼이나도 함의로 끝나서 워자런나도 받게 된다면 조금의 여유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취업 준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3>

쉼터 이용 여성들이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근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나 편의점 판매직 등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직업훈련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취업의 분야나 적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당장의 소득을 위해 취업을 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가해자의 자녀 부양 및 양육 능력을 신뢰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녀도 함께 학대했던 경우라면 더욱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취업은 업두가 안나고 그래서 창업을 생각했죠 집근처에 작은 샵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잠깐씩 들렀다 가고 되는 (중략) 당장은 양육수당 1인당 20만원씩, 학부모 가정 생계비 38만원, 국면 취업 지원제도에서 학원 안빠지고 다니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끼면서 살면 우선은 살 수 있어서 어중간하게 맞지도 않은 일 찾아 다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한테도 얼마 준비하고 있는거 설명하고 도둑 달라고 했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업따가 사장님 된다고 <참여자 4>

심신 안정, 이혼 소송, 취업, 직업훈련 등은 그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한정적이고 촉박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무엇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개개인의 시간의 구조

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바로 1급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과정이 꼬박 2년이 거렸어요 사실 준비하고 시험 합격하고서는 희망에 부풀었죠 선생님들 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내 나이가 취업하기 힘든 나이라는걸 실감하게 되었죠 소장님과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곳에 면접을 가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여성인력 개발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을 했죠 재가인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일인데 나쁜 보람도 있고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하기까지 운전연수, 컴퓨터 자격증 등 준비를 도와 주신 센터에 감사해요. <참여자 5>

일은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삶의 활력과 생기를 제공한다.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와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가 있다. 보호시설에서 여성들은 정서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출퇴근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거주지 선택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시설 거주 피해여성들이 퇴소 후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첫째,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둘째, 생계비 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알선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퇴소 후 생계와 주거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류은주, 2009 ; 박희숙, 2002 ; 신나래·박연주, 2018 ; 이진현·강희숙, 2015), 퇴소 후 대부분은 불안정한 주거지에 거주(김선숙 외, 2008)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 안에서 지원대책은 준비되어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극소수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체계 안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가족들은 주거가 안정되면서 경제적 상황도 다소 개선되고, 자녀 등 가족구성원과 관계를 회복하며, 삶의 안정성을 찾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 한편 주거지원 시설은 여전히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공동생활 및 사회적 관계와 단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경제활동 시간의 제약과 일-가정양립 등 가해자가 없는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여전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기간의 제한으로 여전히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퇴소하면 방 2개짜리는 최소 있는 데서 지금 살고 싶은 생각이어서 장기 쉼터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아들이 내년이면 고등학생이고 딸도 중학생인데 한방에서는 (중약) 그런데 제 힘으로는 자립이든 주거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쉼터나든가 이쪽에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죠 지금 기댈 데라곤 쉼터 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도와 주시면 좋겠어요 <참여자 1>

가족구성원에 따라 거주지 선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생활비 등 지원 여부를 생각하면 장기 쉼터에서 2년을 더 보내고 자립요건을 더 채워서 거주지 이동을 하고 싶지만 아들의 나이와 학업을 고려하면 단독방이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참여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저번에 선생님은 대화를 하고 장기쉼터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 들었어요. 단기 쉼터에서처럼 또 2년을 여러 제약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주거 지원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바쁠때 다른 이모들이 돌봐주기도 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생계비가 절약되니까 장기쉼터가 최장 2년이라 다 채워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당은 이혼 끝날때까지는 쉼터에 머물다가 차후에 외부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부모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때까지는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거주지 선택이 달라졌다. 아이의 양육환경 즉 학교, 유치원 진학 문제, 이혼이 성립되었는가에 따른 지원체계에 따라 선택이

달라졌으며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저는 이혼이 되면 무조건 일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이기도 하고 다자녀이기도 하고 신앙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왜 버티는지 며칠전 전화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살길을 해주라고 저한테 그런 거야 그 소리 듣고 나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은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행동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은 도저히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저랑 저희 애들이 자기한테 갚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러고 버티다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중략) 나중에 이혼이 되더라도 2주에 신청하고 집을 알아보는건 쉽터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은 봤는데 센터에서 그 과정을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은. 지금 쉽터의 도움이 물론 고맙지만 한방에서 5명이 지낸다는게 너무 힘들네요. 애들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1년 이상 이렇게 지내는 거는 되게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일을 다녀와서 잠깐 숨통질 공간이 없어은 <참여자 3>

이혼재판의 기간은 최초 변론기일 1회, 가사조사절차 회부, 2회 정도의 가사조사, 조정절차 회부 등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판결은 양육권 이외에는 피해자들이 예상하고 있던 결과이지만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연장하는 기간으로 인식되었고 쉽터에서 더딘 일 처리로 결과가 지연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간혹 관찰되었다.

당기 쉽터에서 10개월을 살다가 퇴소할 때 매입인대 주택을 선택해서 월세 지원 받으며 지냈어은 남편이 없는 우리만의 공간이 너무 좋아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아이 침대도 사주고 소파에 TV도 샀어은 사람처럼 사는데 자립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은. 건조기도 작은걸 사서 아이들 옷을 방안 가득 널지 않고 바깥 말리니 너무 좋더라고은 쉽터에서 밥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이니 좋았어은. 지금은 이혼하고 양육비도 받고 있고 워자료를 받아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10년을 맞고 살았어은 <참여자 4>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에도 일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탈폭력을 미리 준비했던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현금을 갖고 보호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갑자기 보호시설에 입주하게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현금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동반 입소의 경우에 크고 작은 양육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특히 현금이 필요하다.

저는 제 이혼으로 된 재산이 있었고 남편이 넣어준 돈이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이 러다 보니까 아예 지원은 안됐었죠. 근데 이 재산은 제가 건들 수가 없었죠 대추신 청이라도 하면 제 위치가 들통이 낄 상황이니깐. 꼭 집 구할때 뿐만 아니라 생활기 간 내내 현금이 부족해서 힘들었어요. 단기씩터 1년, 장기씩터 2년까지 기한 종료가 압박해 오니까 너무 불안 했어요 이혼소송이 늦춰지고 손에 천건 없는데 재산이 많 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하지 이러다 친척들 집에서 눈치보고 살아야 하나 딱딱해서 웅기만 했죠. 다행히 퇴소 3개월을 남겨두고 남편이 항의 이혼으로 뺄을 독리면서 재산 분할을 받고 전세 아파트를 자비로 마련해서 퇴소할 수 있었네요. 단 칸방 생활 3년만에 30평대 아파트 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났어요 <참여자 5>

장기씩터 거주 희망자는 공동생활에서의 규칙들이 선택 과정에서 장애의 요인 이 되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여자는 현실적 대안의 부재에서 배우자에게 로 복귀를 고민하기도 했으며 주거지원 행정적 절차에 대한 복잡함이 선택을 어 렵게 만들었다. 참여자 5의 경우는 이혼 과정이 장기화 되면서 재산이 있다는 이 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로 행정과정의 융통성을 적용하여 선지원 후 경제력 여력이 갖춰졌을 때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줬더라면 하는 아 쉬움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심신 안정, 이혼 소송, 취업, 직업훈련 등은 그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한정적이고 촉박한 시간적 제약 으로 인해 무엇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개개인의 시간의 구조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4절 자립을 위해 새동지로 떠나다

### 1.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

가정폭력피해여성 대부분은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다. 보통 1심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쉼터 이용 기간인 6개월을 넘게 되며, 소송이 지연되기도 하여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로 코로나 시국에는 2년이상 걸린 사례도 있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소송 당사자인 쉼터 이용 여성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소송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기도 하며 수시로 쉼터 종사자나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 적응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쉼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이도 있다. 자신의 거처가 마련되었지만 심리적인 안정과 신변 보호 등 안전의 문제로 쉼터에 기거하기를 원하거나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퇴소를 한 후에 재입소를 타진하기도 한다.

상당해주신 선생님이나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꾸 힘이 되는 말, 힘이 나는 말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내가 퇴소후에도 선생님하고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참여자 1>

참여자 1은 심층 면접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 조리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종사자의 인맥으로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하여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다.

퇴소한 다음에도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계속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쉼터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여자2>

참여자 2는 쉼터와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퇴소한 사람들도한테도 심리 상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니까... 정신치료를 필요해요. 심리상담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자존감이 낮으니까 상담도 계속 받을 수 있게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참여자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문제는 보호 차원에서의 탈시설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는 보호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심리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여성이 많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재 퇴소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없지만 퇴소한 사람들에게도 상담이 필요해요. 물론 밖에서도 돈주면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려우니까 남편이 저 없을 때 아이들만 있는데 그냥 집에 들어 온적도 있어서 언제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죠 <참여자4>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 퇴소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없지만 퇴소한 여성들에게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프면 애들을 어떡하나 쉼터에 있을때는 날마다 살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밤중에 아프면 당직실에 가서 달라고 하고 퇴근이 늦어지면 아이들 부탁한다는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갈등 상황에서 중재도 해주셨는데 오로지 내 몫이다 보니 (중략) 길들여 지는건지 적응을 쉽게 할건지 아이들을 선생님께 많이 맡겼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자5>

쉼터는 폭력적인 삶을 단절하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남편이 있지만 가장의 부재를 느끼며 공포의 대상이기만 했던 가정의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쉼터에 불만도 많았지만 한 없이 의지했던 쉼터에 대한 양가 감정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2. 퇴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쉼터와의 관계

피해여성들은 퇴소 이후에도 가능하면 쉼터 근처에 있는 주거지를 선호하였다. 쉼터가 마음 속의 친정 같은 존재라며 울고 웃으며 아픔을 함께 했던 동료 입소자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집으로 초대하거나 퇴소 후 생활에 대해 공유하였다. 입소자들은 퇴소자들이 자립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쉼터에 대한 신뢰가 커졌고, 더 나아가 퇴소 이후에도 쉼터와 관계를 지속하는 퇴소자의 삶을 통해 안심을 하기도 한다.

쉼터 같은 경우도 나가면 끝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퇴계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선생님도 연락 주고 받고 선생님한테도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 하거나 그러면 못하는데 반가워 해주고 아이들 물어봐 주는게 따뜻하죠 <참여자4>

퇴소자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쉼터와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함으로서 홀로서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앞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주거지원이 아니라 별 관심을 받지 못해요 주거지원에 간 사람들은 얼마전에 갈비를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장식장도 사줬고 직업훈련도 받고 있다는데 물론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이 지원 받는건 맞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연락 하통 없고 많이 서운하죠 그게 뭐 선생님들 탓이겠어요. 예산이 없는걸 <참여자5>

퇴소 이후에 되돌아보면 쉼터에서 힘들었던 일들까지도 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쉼터에서의 공동생활을 마치고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지를 옮기자 소소한 일상들이 자유로 다가왔으며, 그 경험들을 통해 퇴소 이후의 일상이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쉼터의 모습에서 신뢰감이 깊어지고 자립의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 3. 쉼터 퇴소 후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

피해여성은 퇴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추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여전히 4대 보험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주거지 열람 제한 신청을 해 놓아도 자녀들을 시켜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치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추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퇴소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청해야 했다. 또한 입소자는 퇴소 즉시 쉼터에서의 지원이 단절된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들이 있지만, 일부 지원은 신청과 등록에 수일이 소요되며 지원의 연속성이 훼손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지원을 신청하면 2~3개월이, 영유아 자녀를 위한 종일 돌봄반 입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선정에도 일정 시일이 필요하다.

퇴소자들의 성공적 자립은 입소자들에게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퇴소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종사자 지원 또한 미비하였다. 퇴소자 관리는 종사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나, 퇴소자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업무 시간 이후에 만나거나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자비로 지원한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다.

낚겨진 문제는 지금 이혼에 관해서 이혼이 가장 저기하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전화해서 또 이제 오라고 했는데 세무서에 또 전화해야 되고 건강관리 공단에다가 전화해서 또 서류도 내야 되고 진술서는 다 됐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것들도 다 완료됐구요 접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데요 최소 10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관할이 여기가 아니어서 그런다고 저는 이혼만 해결되면 당장은 바라는거 없어요 <참여자1>

특히 가해자의 비협조로 이혼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퇴소자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 때문에 공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퇴소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도 쉽지 않다.

낚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유 없이 죽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대거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한가 나는 거지 저는 막내가 학교에 들어와서 아빠 얘기를 해서 그냥 아빠 얘기 그럭하고 다른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가 치밀하고 그냥 갑자기 몰라타서 이유 없이 아빠 얘기만 하면 한가 치밀어 몰라타요. 왜 그렇게 까지 몰라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들어와서 애들랑 생활 애들 재워놓고 몰래 울음 소리 안 들리게 한장식 가서 울던가 아니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울던가 그렇게 했어요. <참여자3>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폭력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트라우마도 강하고 기억에서 빨리 지우고 싶어 이혼이 성립되기를 기다리고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기를 거부했다. 심리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확인되었다.

쉼터에서 퇴소 후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일부로 그니까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사람들하고 관계 이런 거에서도 갈등이 오고 또 내 처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했는데 너무 자매가 돼 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지켜야 될 선을 넘나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더라구요. 저는 이웃들에게 쉼터에 있었다는 말은 하기 싫고 아이들도 그런 말 듣게 될까봐 걱정되요. 어째든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여자4>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과 더불어 지금까지 홀로서기를 주저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쉼터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가정폭력을 단절해낸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고 자아를 회복하며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도전하였다.

<표 4-1> 분석결과 요약 1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1. 가정폭력(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의 남편은 아주 사소한것 까지 주변인을 시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힘들게 일을 하고와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은 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빠에게 대들게 되었고 싸움의 발단이 되어 아들을 폭행하였고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는 아이의 의견대로 아빠를 아동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아이들이 놀면서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낮잠을 자다 일어나 아들을 헐떡이 몽둥이를 이용해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엄마는 경찰 올 때까지 아이들은 온 몸으로 감싸 안으며 폭행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고 한다. 남편 키가 183센티나 되고 체구도 크편이지만 아이들은 다른집 아이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편인데 그런 아이들을 일주일에 2~3일은 소리 지르고 때리고. 허리띠, 몽둥이, 손을 이용해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약하고 갖은 핑계를 대어 학대를 했으며 특히 엄마가 없는 사이 애들을 폭행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엄마도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주로 발로 배를 차는 폭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얼굴만 때렸다고 한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살한다는 말을 자주 하여 아내가 없는 사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머리를 많이 맞아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명도 들고 물통으로 때린 적도 있고 물건 던지거나 목을 조른 적도 있었으며 그러다 미안하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를 한 2년 마다 반복 했었다고 한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아기가 태어나고 밤에 울 때마다 폭행이 점점 심해졌고 아기를 젖 먹이다가 잠들었다는 이유로 죽도록 맞고..젖이 부족한지 애가 울어 분유를 조금 먹였으면 싶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고 표창 던지듯이 아내 옆으로 젓가락을 던지며 벽에 콧고 임신 중에 때리면서 내 아이 맞냐고 폭행을 하여 아이가 유산이 되고 집에 왔는데 친구랑 족발을 먹다가 들어와서 유산한 아내를 때려 하혈을 엄청하는 채로 도망을 나왔고 끓고 있는 떡볶이도 부어버리려고 하고, 남편이 주는 100만원 안에서 식비, 애들 학용품비, 차비, 반찬은 또 제대로 차려놔야 되고 항상 술, 고기 반찬이 없으면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어느 날은 차를 어느 주유소에 멈추더니 엄청 큰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 죽일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아기를 안고 주유소로 뛰어 들어가서 살려 달라며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남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트집 잡아서 언어 폭력을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으며 가족들이 쓰는 돈은 한푼까지 허락을 받아했고 대부분 쓸데없는 곳이라며 돈을 막아버리고 자신이 필요한 곳은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p>

<표 4-2> 분석결과 요약 2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2. 가정폭력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집을 떠난 계기는 무엇 이였나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남편에게 그냥 평범한 아빠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책임도 저주고 따뜻한 분위기 만들고, 애들과 한 번씩 맛있는 것도 먹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바랬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애들은 점점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심지어 아들과 싸움을 하고 그것도 중학생인 아이와 쓰러져 있는 아들을 나몰라라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 되면 아이들이 주눅들어 있고 될 수 있으면 아빠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았다고 한다. 14년 동안의 결혼생활중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어 갈수록 심해졌고 그동안에 고소도 여러번 했다가 취하하고 반복하면서 나아질줄 알았는데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들한테는 아빠의 자리를 비워두고 싶지 않아 14년을 참고 인내했지만 성장한 아이들이 아빠의 폭력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엄마 역할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아이가 다섯 살때 쯤부터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되었고 목청이 높아지면 아기가 불안해 했고 남편이 더 화가 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남편의 부당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서 참았지만 폭력은 더 심해졌었다고 한다.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폭력들이 있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또 참고 그 상황을 그냥 버티며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빠의 나쁜점을 감춰주려고 했었지만 아이가 8살이 좀 넘어가면서는 은연중에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걸 좀 알고 아빠를 멀리 했다고 한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남편의 급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이가 먹으면 좀 좋아지겠지라며 나이 40살 이상 되면 남자는 성격이 수그러든다는 말은 듣고 40만 되길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40이 넘었는데도 달라지지는 않고 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온갖 폭력 앞에서 아이셋을 생각하며 참았지만 아픈 엄마가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는 어린자녀들을 뿌리치고 겁박하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의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뭘 수를 내서든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했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솔직히 말해서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저를 죽였을 거예요. 그거는 장담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라며 아빠와의 갈등으로 큰아이의 투신을 겪게 되고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며 우울감이 심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트랩에 갇힌 것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p>

<표 4-3> 분석결과 요약 3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3. 집을 나올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원래 일했던 편의점을 그만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돈도 없이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빠를 신고 했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는 없었고 옷가지나 필수품,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으며 수중에 10만원 정도 밖에 없어서 남편 보험을 해약하고 카카오에서 비상금 대출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원래 돈을 조금 여윌 돈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신랑이 투자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참여자의 돈을 강요에 의해서 함께 투자하게 되었지만 투자에 실패하면서 몇천만원이 없어지면서 빚을 갚는 지경이 됐었다고 한다. 그래도 월세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증금을 남편 모르게 들고는 있었는데 남편의 반복되는 폭력과 용서를 거치며 마음속에는 이제는 떠나야지, 이젠 마지막 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냈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그냥 몸만 나왔죠 신고 있던 양말 그대로 아무 준비도 경제적으로도 통장에 잔고도 없었어요. 30만원인가 40만원 정도인것 같아요”. 폭력 상황이 다음에 또 발생하거나 남편이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집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때쯤 애들한테 “엄마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희한테 아빠가 있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랑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아빠 너무 싫다고 큰애가 엄마 우리 그냥 나가자 우리 아빠랑 살지 말고 가자 어디든 가자” 라는 말에 눈물이 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1366 번호가 적힌 종이를 수없이 만지지만 하다 용기내어 연락하게 되었고 금전적 준비보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한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준비라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지내고 보니 금전적인 준비가 가장 먼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여자 5는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참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모두 남편이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와 얘기를 나눠서 투자 해 놓은 상태라 돈을 빼놓았다면 집에서 탈출하는 일조차 시도하지 못했을 꺼라고 하며 돈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했다고 한다.</p>



<표 4-4> 분석결과 요약 4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4. 쉼터에 머물기까지의 연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가정폭력으로 동네 파출소 신고하였고 파출소에서 1366을 알려주어 안심 숙소에서 이틀간 머무르다 쉼터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과정에서 일반쉼터에서는 아슬아슬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중학교 2학년 남자라 청소년 보호시설로 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자 가족 보호시설로 연계가 되었다고 한다.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참여자는 큰 애를 기사사에 두고 온 상태라 작은 아이와 떨어질 수 없었으며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탈출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고 계속 알아보시다가 가족 보호시설로 연계가 되었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남편 폭행이 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니 쉼터로 연계해 주더라고요. 만약 저는 쉼터가 없었으면 저는 진짜 오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집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참여자는 쉼터로 바로 연계되어 쉼터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어요. 1366 가서 갈 곳도 없고 남편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난다고 했더니 보호시설로 연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참여자는 쉼터 오기 전에 남편이랑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이 겁나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의 쉼터를 알아 보았다고 한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여러번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과 화해를 하라는 식이었고, 그 때 마다 실망이 컸었다고 한다. 폭력은 이어졌지만 경찰의 공권력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상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몇 번 상담을 받으면서 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쉼터에 연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이 찾아와도 대문 앞에서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진짜 그게 되게 너무 안전하다는 거 보호받고 있다고 많이 느끼죠.” 참여자는 남편이 찾아올까 초조해 했지만 차츰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쉼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한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여성의 전화는 여러번 갔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참여자는 1월이나 2월쯤에 “제가 전화를 해서 계속 있었는데 그때 그 전화를 받아주신 선생님이 베테랑이셨어요. 전과는 달리 그 선생님께서 이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오세요. 이따 와서 저랑 얘기 나눠요”. 라는 연락을 받고 쉼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기에 2달여의 준비를 하고 아이들 방학에 맞춰 입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p>

<표 4-5> 분석결과 요약 5

질문 및 답변 참여자	<b>질문 5. 쉼터 거주기간 동안 좋았던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b>
참여자 1	<p>             참여자 1은 거의 매일 이유 없이 욕먹고 맞고 사는거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쉼터를 일찍 알았다더라면 몸도 마음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으며 쉼터에 와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니 안전한 곳에 있다는게 너무 좋았지만 잠잘 때 예민한 편으로 불빛도 없어야 되고 소리도 없어야 하는데 12시 넘어서까지 쿵쿵거리고 아이 우는소리도 들리는 등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였다.           </p>
참여자 2	<p>             참여자 2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따로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부담이 적다고 하였으며 딸아이가 어울릴 또래 친구들이 많아 외롭지 않고 취사원이 따로 있어 식사를 준비 해주니 감사하고 편하다고 하였다. 숙식 제공도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거리가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비공개 시설이라 남편이 찾아 올 수도 없는 점들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p>
참여자 3	<p>             참여자 3은 같은 아픔으로 오신 입소자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많은 의지가 되었으며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식단이 어른 위주여서 불만이였고 정해진 재료로 각자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는 만큼 먹이고 싶은건 많지만 요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외출 일지를 작성하는게 감시받는 것 같아 감옥 같다고 하였으며 쉼터에서 저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아직도 불편하긴 한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고 나니까 감사하다고 했다.           </p>
참여자 4	<p>             참여자 4는 쉼터에 오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잘 정돈되고 가족별 공간에 화장실까지 함께 있어 자녀들은 호텔 같다고 하자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남편이 찾아와도 안전하다는 건 보호받고 있다는 입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한밤중에 당직실에 찾아가 우리 “남편이 정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여기 쳐들어올 수 있고 남편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는 경찰이 늘 가까이 있고 CCTV도 많고 잠 안자고 지킬테니 염려 말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다고 한다.. 일주일 지날 때 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아 또 도망가야 되나 생각할 만큼 힘들었는데 정해진 규칙들이 많고 입소자들 간에 텃세를 경험하며 힘들었다고 한다.           </p>
참여자 5	<p>             참여자 5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에 굉장히 안도감이 들어서 행복했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는데 먹는거 걱정 안했다는거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으며.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으며 힘들었던 건 정말 무시무시한 텃세였다고 한다. 평소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인과 부딪치는 일이 없었는데 몇몇의 입소자와의 마찰로 고민이 많았으며 숨막히는 규칙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참여자에게는 기거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p>

<표 4-6> 분석결과 요약 6

질문 및 답변 참여자	<b>질문 6. 컴퓨터에서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b>
참여자 1	<p>참여자 1은 개인 상담 8회기를 하면서 상담자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 회기를 연장하여 좀 더 할 수 있기를 요청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고 집단 상담은 서로에게 위안은 되었지만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한다. 자녀가 개별상담을 통해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개인 상담 6회기가 짧다고 하였다. 자기 노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 성격으로 세 번 정도는 남편 얘기하고 두 번 정도는 컴퓨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어서 이제 상담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집단 상담은 무언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잠시나마 폭력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저는 지금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 하고 있는데 바쁘게 만들어 줘서 좋고 내용도 알차서 다 좋다고 하였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집단 상담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잠깐이나마 집중하는 시간에 안정이 되고 편안한 마음이었으며 공예, 원예 프로그램은 작품 하나 완성 했다는 성취감도 있었고 집단 상담에서는 처음 보는 앞에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서로 얘기하면서 공감하며, 서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인데 많은 위로가 됐던것 같다고 하였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집단 상담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더 돈독해지기도 하면서 너무 좋았지만 우울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침체되는 기분에 빠질까 봐 일부러 집단 상담 시간을 피해 다녔다고도 한다. 하지만 개별상담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맘껏 수다를 떨다 보면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함..</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집단 상담을 하면서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타인이 나를 향해서 공감해 주고 같이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 때문이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거 느낄 수는 있었다. 그러나 내 얘기를 타인에게에게 한다는 사실이 불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집단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개별상담에서 입소자에 대한 배려를 더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p>

<표 4-7> 분석결과 요약 7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7.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 직종이 반영되었나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검정고시를 마치고 고졸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고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직업 훈련은 한식 조리사, 네일아트, 바리스타, 컴퓨터도 하고 싶으며 이는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였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내일 배움카드를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테 제미도 있지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보인다 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느껴 본다고 하였고 단기 알바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컴활, 워드, 세무회 계까지 취득하면 정규직 일자리 찾고 싶다고 하였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서 직업훈련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생계 때문이지만 배우고 싶은 건 있다며 컴퓨터, 바리스타, 조리사를 배우고 싶지만 학원시간과 양육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직업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다. 집에만 있다가 재미를 느끼니까 이것 저것 다 하고 싶어 아이티큐, 한글, 엑셀, 헤어, 네일아트를 했으며 욕심이 많아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내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의욕이 생겼으며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 엄청 도움이 되고 있으며 먼저 헤어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적성에 안 맞았고 평소에 네일에 관심이 많아 입소자들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지켜본 종사자의 도움으로 네일 자격증반 학원 다니게 되어 실무반, 그리고 속눈썹 연장 폼, 눈썹 문신 까지 배워서 이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입소 후 처음 권유 받은건 요양보호사였지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한식 조리사에 도전 했다고 한다. 입소자들과 학원 같이 다닐 수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좋은 기회이니 한번 따 보라는 권유와 자격증이 하나 더 있으면 나쁠거 없고 또 60이 넘어서 조리사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직업훈련으로 조리사를 수강했는데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한다면 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사회복지사 부분에서는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17개 과목당 비용이 필요했고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직업 훈련을 하기 위해서 1인당 할당된 지원비가 많지 않아서 종사자들은 지원 해주시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p>

<표 4-8> 분석결과 요약 8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8.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현 취업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단기 알바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아이가 있다고 하니 면접을 봐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설사 구하더라도 워터 쿨러 시간에 맞추다 보면 일을 할 수 없었다. 통금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편의점 일자리가 공지가 올라온 게 대부분 야간이거나 새벽이어서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 아동수당, 긴급생계비 다 해도 100만원도 안되는데 당장 보험에 휴대폰 요금에 아이들 용돈 돈 들어 갈 때가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포기하고 고등검정고시 합격하고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면 학교 급식업체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대학교 졸업하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 식당 일을 도왔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직장생활의 경험이 없었으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강해 취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 혼자 할 수 있는 주식투자를 공부하기도 했다고 함. 이혼을 하고 자립을 하려면 취업은 꼭 해야 하는 거라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려고 하며. 컴퓨터 자격증 취득하면 자활근로 이긴 하지만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다며 담당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자활근로로 생계비를 벌면서 공부도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꿈이나 이상을 쫓아 가기에는 자녀 4명을 책임지기에 벅차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보육교사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직업을 준비하려면 1년 이상은 시간투자가 되어야 하고 혹시 이혼이라도 합의로 끝나서 위자료라도 받게 된다면 조금의 여유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른 취업 준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취업은 임도가 나지 않아 창업을 생각했으며 집 근처에 작은 샵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잠깐씩 들릴 수 있는 창업이 꿈이라고 했다. 당장은 양육수당 1인당 20만원씩, 한부모 가정 생계비 38만원,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서 학원 빠지지 않고 다니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끼면서 살면 우선은 살 수 있고 적성에 맞지 않은 일 찾아 다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한테도 엄마 준비하고 있는거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했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바로 1급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과정이 꼬박 2년이 거렸으며 시험 합격하고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나이가 취업하기 힘든 나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장님과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곳에 면접을 가도 쉽지 않았고 결국은 여성인력 개발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여러번의 면접 끝에 취업에 성공하여 재가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일로 나름 보람도 있고 감사하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 성공하기까지 운전연수, 컴퓨터 자격증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p>

<표 4-9> 분석결과 요약 9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9. 쉼터 거주기간 종료 후 거주지 선택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퇴소하면 방 2개짜리는 최소 있는 것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장기 쉼터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내년이면 고등학생이고 딸도 중학생이라 한방에서 지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스로 자립이든 주거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장기 쉼터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쉼터에서처럼 또 2년을 여러 계약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주거지원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엄마들끼리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 주기도 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생계비가 절약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장기쉼터가 최장 2년이라 다 채워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혼 끝날때까지는 쉼터에 머물다가 차후에 한부모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 이전에는 장기 쉼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자녀가 4명인 다자녀 이고 한부모가 되면 지원에서는 무조건 일순위라는 상담을 받고 LH에 임대 아파트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한다.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잘못해서 놓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신청하고 집을 알아보는건 쉼터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한다. 지금 쉼터에서 한방에서 5명이 지낸다는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했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단기 쉼터에서 10개월을 살다가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매입임대 주에서 월세 지원 받으며 지냈었다. 1년여를 지내다 이혼 판결을 받고 조금 더 넓은 매입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10년을 폭력속에서 살았다며 울먹였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남편이 아파트, 건물을 매입하며 아내의 명의를 이용한 탓에 단기쉼터 1년, 장기쉼터 2년까지 쉼터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기한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매우 불안 했다고 한다. 이혼소송이 늦춰지고 손에 쥘건 없는데 재산이 많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다 친척들 집에서 눈치보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울기만 했으며 다행히 퇴소 3개월을 남겨두고 남편이 합의 이혼으로 맘을 돌리면서 재산 분할을 받고 전세 아파트를 자비로 마련해서 퇴소할 수 있었다. 쉼터 단칸방 생활 3년만에 퇴소하여 30평대 아파트 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났지만 혹시 때 이혼이 되지 않았더라면 길 바닥에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했다.</p>

<표 4-10> 분석결과 요약 10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10. 쉼터 퇴소 후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1	본 질문은 퇴소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2	본 질문은 퇴소 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3	본 질문은 퇴소 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4	<p>참여자 4는 남편이 없는 우리만의 공간이 너무 좋아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아이 침대도 사주고 소파에 TV도 샀으며 친정 오빠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건조기도 작은 걸 사서 아이들 옷을 방안 가득 널지 않고 바로 말리니 너무 좋았고 쉼터에서 밥을 제공해 주긴 했지만 아이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먹이니 좋았으며 지금은 이혼하고 양육비도 받고 있고 위자료를 받아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p> <p>하지만 면접교섭을 핑계로 자녀들만 집에 있을 때 전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서 혹시나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프면 애들을 어떡하나 쉼터에 있을 때는 날마다 살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밤중에 아프면 당직실에 가서 약 달라고 하고 퇴근이 늦어지면 아이들 부탁한다는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갈등 상황에서 중재도 해주셨는데 이제는 오로지 혼자의 몫이다 보니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고 한다.</p> <p>그동안 직업훈련으로 받은 교육 덕분에 회사에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었으며 함께 지냈던 입소자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자조 모임을 활성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하였다.</p>

<표 4-11> 분석결과 요약 11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11. 퇴소한 이후 쉼터의 지원서비스는 어떠했나요
참여자 1	본 질문은 퇴소 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2	본 질문은 퇴소 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3	본 질문은 퇴소 이후의 내용임으로 현 입소자에게는 내용 제외함
참여자 4	<p>참여자 4는 현재 퇴소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하였다. 아직도 폭력 상황이 떠오르면 몸이 굳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쉼터 거주 기간 동안에 트라우마를 온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이제는 고향과 같은 쉼터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전한 내편이었던 종사자와 동질감으로 형제처럼 지냈던 입소자들과의 단절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들게 했다고 한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주거지원이 대상자가 아니라 퇴소 후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얼마전에 모임도 함께하고 갈비를 먹고 거실 장식장도 사줬고 직업훈련도 받고 있다는 주거지원을 선택한 전 입소자들의 소식을 가끔 들을 때는 소외감이 들었으며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이 지원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p>



<표 4-12> 분석결과 요약 12

질문 및 답변 참여자	질문 12. 자립을 위해 남겨진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참여자 1	<p>참여자 1은 자립을 위해서는 이혼이 가장 급선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야만 주거지원을 통해 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혼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다. 지역 관할이 달라 접수 후 최소 10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만 아이들 셋을 양육할 수 있는데 건강도 좋지 않아 힘든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p>
참여자 2	<p>참여자 2는 이혼은 합으로 진행될 것 같아 다행이지만 취업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 컴퓨터, 전산회계 등을 직업훈련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쪽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혼자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 말이 쉽게 나오질 않는다고 한다. 모든 과정들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지원받은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고 한다.</p>
참여자 3	<p>참여자 3은 자녀가 4명인 만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다. 본인 포함 5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확보와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질 좋은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p> <p>또한 자녀들의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p>
참여자 4	<p>참여자 4는 쉼터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입소자와 퇴소 후 관계가 지속되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서 혹시나 이웃들에게 쉼터거주 경험이 타인에게 알려질까 봐 염려가 된다고 하였다.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낙인감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전남편의 폭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를 가할까 걱정하여 거주지를 자주 옮기게 될 수도 있음을 호소 하였다.</p>
참여자 5	<p>참여자 5는 이혼 과정이 종료가 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있어서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는 모든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학교를 거부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문제가 가장 힘든 점이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해 많은 비용을 감내하고 있었다. 진정한 자립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p>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쉼터 입소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기초자료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은 5명으로 쉼터에 입소해 거주 중인 여성 3인과 퇴소해 자립에 성공한 여성 2인을 의도적 표집법에 의해 선정하였고 가정폭력과 쉼터 경험 그리고 자립을 위한 과정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을 통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을 겪게 되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눈물 어린 남편의 반성과 참회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였지만, 폭력은 반복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괴롭힘은 지속되었다.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자 참아왔으나 이 과정에서 폭력은 자녀에게로 확대되었으며 가족간의 갈등은 자녀가 아빠를 학대로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집을 탈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망설일 때는 자녀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폭력의 가해자는 원거주지에서 생활의 타격을 받지 않은 채 거주하였으나 폭력의 피해자는 동반한 자녀와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너무나도 생소한 경찰서, 1366, 보호시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탈출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호소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알았다더라면 폭력 피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둘째, 쉼터는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퇴소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체계를 갖추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소자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일부는 이혼 성립 이전 가해 배우자의 사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 과정에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였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안전을 우선순위로 둔 쉼터에서는 입소자들은 안전의 확보와 쉼터 노출을 막기 위해 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통제된 일상을 살고 있었으며, 공동생활에서 겪는 입소자들간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불만으로 이어져 자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 직업훈련과 취업을 위한 쉼터에서의 경제적 자립지원은 피해여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직업훈련은 교육적·심리적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취업 연계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폭력과의 단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입·퇴소자들은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퇴소자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그 밖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복잡한 신청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퇴소자들은 쉼터 퇴소와 함께 생활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으며 한부모 가족이나 수급자로 전환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서 퇴소를 미루며 결과를 기다리다 쉼터 거주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쉼터의 경험과 지원서비스가 자립을 위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고 보여진다.

## 제2절 연구 시사점

### 1. 정책점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컴퓨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컴퓨터는 폭력 피해자인 당사자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들에 개입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며 이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불문을 같은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컴퓨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기관이 있는 줄 알았다며 더 빨리 폭력을 단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소자의 말처럼 이용자 대다수는 컴퓨터라는 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오직 비밀시설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안전방안이 마련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개시설로 전환하고 지원내용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폭력을 단절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함을 알려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의 지원서비스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보호 기능에서 자립의 기능으로 전환되며 탈시설화를 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컴퓨터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수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 지원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을 제언한다.

둘째, 자립의 기반이 준비될 동안의 생계비 지원이다. 물론 현재도 긴급생계비를 포함한 여러 제도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 기간의 지원에 그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단계 즉, 장기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이 되기전에 경제적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훈련이라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시간 매우 기식 직업훈련이 되는 것으로 이는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절박한 피해자들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질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능력별, 재산

수준에 따른 자립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 장기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심신의 회복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셋째,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과정을 체계화 해야 한다.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쉼터 이용 여성들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신이 배워야 할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안내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해도 자신의 적성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미래성이 있는 일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 없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어 직업훈련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호소하거나 수료 이후 취업 및 창업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일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여 직업훈련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넷째, 시설 보호 종료 이후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결혼 지속 기간 내내 이뤄졌으며 어느 고령 여성은 50여 년을 폭력을 감내하며 사는 동안 엄마라는 역할 이외에는 생존의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이렇듯 장기간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쉼터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쉼터 퇴소 이후에도 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균형을 갖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온전한 내편이었고 의지했던 쉼터의 역할을 퇴소자에게로도 확대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 2.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 하였다.

첫째, 쉼터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문제 중 하나는 생활환경의 열악함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안전상

의 이유로 휴대폰 활용이 제한되며 통금시간이 있는 등 생활상의 제약이 적지 않다. 또한 사춘기 자녀를 동반한 가족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내에 청소년을 위한 생활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방에서 지내며 겪는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둘째, 쉼터에서 퇴소한 피해여성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기 퇴소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쉼터 이용 기간의 만료로 인해 직업훈련 과정을 종결하지 못하고 퇴소하게 되기도 한다. 직업훈련의 경험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업훈련 과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퇴소 후에도 가져볼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하며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한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한다.

셋째,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 우울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러한 증상은 단기간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심리적·정서적 증상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한다.

###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통한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쉼터 경험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의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을 살펴보고, 이들이 보다 안정된 취업을 하고 편안한 주거를 마련하여 진정한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 쉼터라는 창구를 통해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논하였다는 대해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심층 면접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경험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 프로그램 기초자료 제시라는 연구 목적과 과제를 취업 및 훈련참여 저해요인 제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장기적 자립지원의 측면에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가운데 쉼터의 입소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비공개 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심층면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참여자가 5명에 대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연구와 더불어, 쉼터 이용 전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설명한 현상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었으며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행정가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정책과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대한 어려움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제시했으나, 각각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피해자의 유형별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의 상처로부터 회복하고 온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쉼터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희숙(2009). “가정폭력쉼터 퇴소여성의 가정 복귀 성공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14(1), 137-152.
- 고은정(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은주·김정우(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피해자학연구, 24(2), 33-62.
- 공미혜(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후 삶과 도전: 부산지역 주거지원사업의 주거공간 입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2), 233-267.
-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혜수·채현숙·박종희·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강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김권영(2014).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김선미(2019). “주거복지제도 자료 정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 자료.
- 김선숙·고윤순·허남순(2008). “가정폭력 쉼터퇴소자의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사회과학연구, 24(4), 1-27.
- 김숙현(2018). “연극치료의 여성주의적 접근 : 성폭력 피해여성의 외상과 관련하여”, 한국연극학, 65, 83-113.
- 김승권(2008).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43, 5-15.
- 김승연(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주관적



-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윤민우·박선영(201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성적 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경찰연구, 12(2), 49-78.
- 김인숙(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00.
- 김인숙(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집문당.
- 김주현(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271-297.
- 김주현·이연호(2008).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비폭력적 결혼관계 유지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8), 5-42.
- 남재욱·신나래·김봄이(202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관한 연구: 쉼터 입소자, 퇴소자, 종사자와의 FGI 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3), 39-70.
- 남재욱(2019).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재욱·김봄이·신나래(2019).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은주(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자립과 자립 이후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6, 5-33.
- 박상태(2018).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시설 경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애경(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언주(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0), 323-346.
- 박언주(2014).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모성경험의 구성과 행위성”, 한국여성학, 30(1), 173-212.
- 박언주·김효정(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15(2), 71-106.

- 박찬양·김진아(2020).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 분석: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1-24.
- 박현숙(2019). “가정폭력발생원인과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8), 611-620.
- 박희숙(2002). “여성폭력 쉼터 이용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남(201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자활 지원 현황 및 제언”, 제1차 가정폭력 방지 월례 포럼 자료집 발표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서재인(2017). “쉼터 30년 성과와 과제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의 진화*.
- 소병숙·정혜정(2002). “쉼터거주 아내들의 학대경험과 대처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169-197.
- 소숙희·최승아(2019).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여성의 경제적 자립 실태조사.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서울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신나래(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쉼터거주여성의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77-110.
- 신나래·박언주(2018).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직업훈련 경험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0(4), 29-60.
- 신나래·박언주(2020). “가정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도움요청 분석 : 정신적 고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4), 27-154.
- 신나래·이영수(2017). “여성의 근로소득이 가정폭력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남성의 배우자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1), 23-39.
-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재은(2012). “쉼터입소경험을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억압과 의식변화과정”, *교육인류학연구*, 15(2), 123-152.
- 양현아(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 연구*, 20(1), 1-45.
- 여성가족부(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22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이은(2000). “학대당하는 아내를 위한 쉼터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순(200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경험한 퇴소에 따른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정(200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거취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현·강희숙(2015).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여성의 성장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9(2), 31-51.
- 정춘숙(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숙(2013).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4), 245-269.
- 정희진(2016).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 제니퍼 메이슨(2010), 「질적 연구방법론」, 경기도 : 나남.
- 채드E·김미리혜(2013),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효과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589-602.
- 최종옥(2012).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와 자녀의 보호시설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정폭력의 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홍상희(2009). “아내 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 Anderson, K. L. (1997). Gender, status, and domestic violence: An integration of feminist and family violence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5-669.
- Glenn, C., & Goodman, L. (2015). Living with and within the rules of domestic violence shelters: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residents' experiences. *Violence against women*, 21(12), 1481-1506.
- Haj-Yahia, M. M., & Cohen, H. C. (2009). On the lived experience of battered women residing in shelt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95-109.
- Kaukinen, C. (2004). Status compatibility, phys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452-471.
- Koyama, E. (2006). Disloyal to feminism: Abuse of survivors within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system. *Incite*, 208-222.
- Macmillan, R., & Gartner, R. (1999). When she brings home the bacon: Labor-force participation and the risk of spousal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47-958.
- Perez-Trujillo, M., & Quintane, E. (2017). Why do they stay? Examining contributing factors to women's length of stay in a domestic violence shelt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1), 89-100.
- Straus, M. A., Gelles, R. J., & Asplund, L. M.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 Tutty, M. L., Weaver, G., & Rothery, M. A. (1999). Resident's view of the efficacy of shelter for assaul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5, 898-925.

- 인터넷자료 및 기타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RL :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3년 06월 03일)

##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거주는 폭력을 벗어나 자립을 위한 첫 번째 원조이며 이는 다시 사는 삶의 동아줄이기도 한 쉼터의 역할을 기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대한 응답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자립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 제시에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1.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에도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면담에 자의로 응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녹음 파일이 폐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발행되더라도 본인의 실명이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연구에 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연구 도중에 참여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면담에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이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들었습니다.

날 짜 :

참여자 :

연구자 : 김금주